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1129 1983년 5월10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May 10,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MAY 1 0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교민사회 발전따라 학자역할 커져야"

캐나다한인학자회 의견일치

(몬트리얼=조미래부장·정관성 지국장) 교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캐나다에 있는 한인학자들의 역할도 교민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한인이민들의 문제를 보다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자들의 집합체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캐나다한인학자회 참석자들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몬트리얼 다운타운 시내 플라스·드피 할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제7차 캐나다한인학자회(Canadian Korean Learned Society : 회장 정희수)는 토론토에서 자동차편으로 올라온 약20명의 대학생회및 대학생동창회회원과 30여명의 몬트리얼교민들을 비롯, 약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7개의 교민생활에 관한 발표문, 4개의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발표및 토의, 총회및 집행부개편, 대사및 몬트리얼총영사 초청오찬및 대사연설등 3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회했다.

역대학자회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교민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룬 이번 회의는 몬트리얼과 토론토지역에서 약40명의 젊은 세대 교민들이 참석, 열띤 질문과 관심을 보임으로 학자회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해준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6일낮 오찬회에 참석한 이규현캐나다대사도 연설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긴밀한 정치·경제관계에도 불구, 서로를 잘 모르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한·카협회(Korea–Canada Society)같은 모임을 만들어 양국의 문화·역사적 유대.관계가 활발해져야 할것이며 이민1세 학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몬트리얼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인 학자회 회의광경. 왼쪽부터 배학순, 김보경, 유희자, 이수민 박사. 원내는 정희수 박사

납치범6명은 한국재판에 회부

중공대표단33명 서울도착, 한국측과 협상진행중

(서울9일=외신종합) 중공여객기 납치범 6명은 한국에서 소정의 재판절차를 거친뒤 대만에 망명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관리가 말했다.

이 관리는 이날 정부가 아직 납치범들의 거취문제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문제를 협의키 위해 7일 서울에 도착한 중공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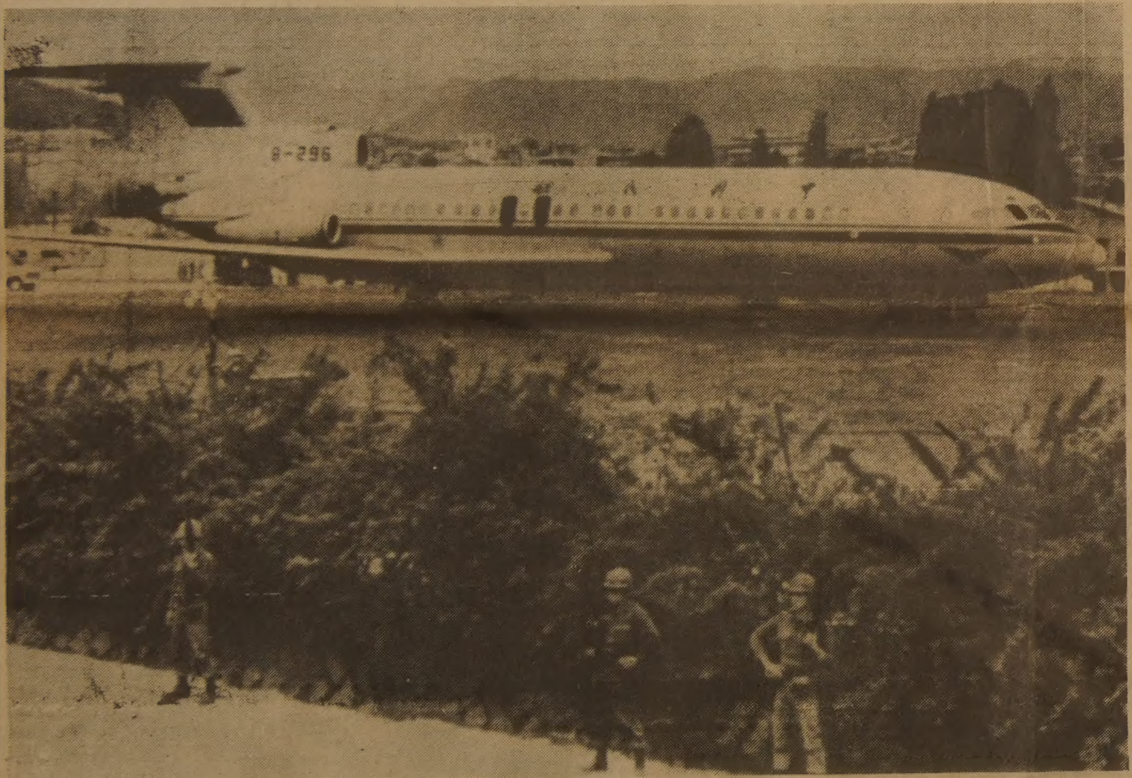
한국에 중공대표가 공식 방문하기는 3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중공국영항공사 CAAC 사무국장 센투씨를 단장으로 하는 33명의 중공대표단은 현재 한국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관리는 그러나 서울정부가 중공측의 요구대로 1명의 여자가 포함된 6명의 납치범들을 중공으로 넘겨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한국의 재판절차를 거친 뒤에 어느 곳으로 갈지는 납치범들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중공은 납치범을 제외한 승무원과 탑승객, 항공기를 가능하면 속히 송환할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한 관리는 이날 납치범들에게 한국법에 적용할 것임을 결정했으나 그들의 구속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납치범들에 대한 심리는 항공기와 승무원, 탑승객에 대한 송환이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중공민항사상 최초로 공중납치된 중공여객기. 춘천근교 미공군기지 「캠프페이지」에 비상착륙하자 미군과 한국군들이 즉각 출동 기지주변을 차단시켰다. 여객기는 활주로 끝에서 겨우 멈췄으며 하마터면 철조망을 뚫고 주택가로 나가 큰 사고를 일으킬뻔 했다. (춘천)

합동정견 발표회

6월5일 CBS와 CTV

CBC와 CTV 텔리비젼은 오는 6월5일 연방보수당 당수후보자에 나선 7명의 합동정견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두 방송국에서는 별도로 후보초청 공청프로그램을 계획 발표했으나 6일 양 방송국관계자가 합동정견발표회에 합의했다.

이 프로는 오후 9시(동부시간)에 각 네트워크를 통해 2시간에 걸쳐 방영된다.

이날 정견발표회에는 각 방송국이 의뢰한 저명언론인들이 출연,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게 된다.

한편 연방보수당 당수후보 16호가 탄생했다.

몬트리얼에서 [illegible] 생산업에 종사하는 53세의 가브리엘·타디씨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자칭하고 "캐나다의 은행들은 시민들과 사업가들의 이윤을 점령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군다"고 비난하면서 당수후보의 변을 피력했다.

캐나다도 호응

미 캐톨릭주교 핵확산금지투쟁 성명

(오타와) 캐나다 로마·카톨릭지도자들은 미국의 동료지도자들이 천명한 핵무장확산금지에 대한 투쟁결의를 높이 찬양한다고 4일 밝혔다.

B.C.주의 레미·데·루주교(캐나다총회사회관계책임자)는 "그들이 보인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으며 평화를 위한 노력에 큰 효과를 나타낼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캐나다주교총회의 총무인 데니스·머피주교는 "그들이 보인 예언자적인 식견과 용기는 귀감이 된다"고 평했다.

미국의 카톨릭주교는 지난주 전국총회를 통해 미국의 핵무장중지를 호소하는 4만여자에 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3692
R. 245-1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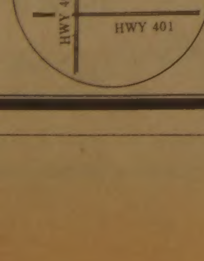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ng I. Hyun C.A.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ROLEX
란품 화장품 대리점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면허소지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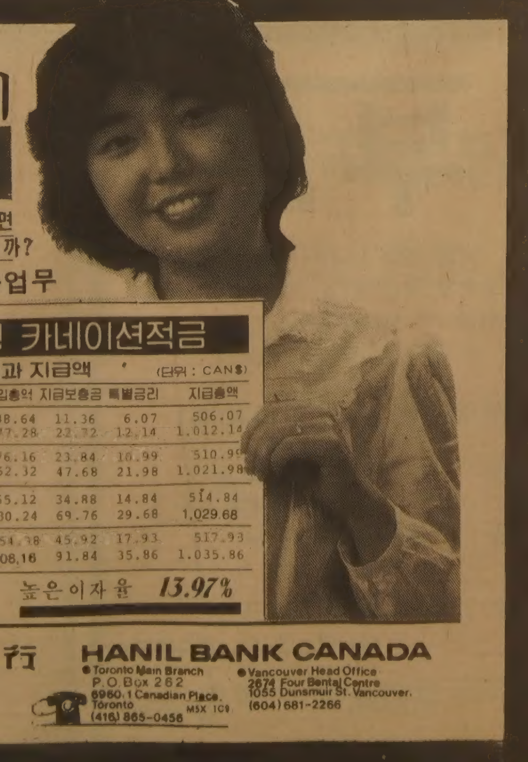
산상부흥사경회

일 시 : 1983년 5월26일(목) 밤7시30분~5월29일 (주일) 아침7시
주일 낮·저녁집회는 본교회당에서.
장 소 : PINE ORCHARD CAMP 장
강 사 : 전 동 운 목 사
(서울 영동제일교회 시무·현재 1년 예정으로 시카고 무디신학교에서 성경연구중)
교통편 : 1) 직접 오실수 있음(토론토에서 50분거리)
2) 교회버스를 이용하실분 : 목·금/ 두번 운행. 오후6시까지 중앙교회(Bathurst + College)로 오시면 됩니다. 먼저 전화 주십시오.
(☎ : 826-8986, 961-3189, 444-9168)
참가비 : 개인당 15불(침구및 세면도구·휴대용 전기난로 각자지참)



토론토 중앙교회 남전도회

빠르고 편리하게
하나+둘+셋
노력과 땀으로 이뤄논 결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증식시킬수 있을까?
●정기예금및 적금 ●대출업무



한일은행 카네이션적금
정기적금의 월부금과 지급액 (단위 : CAN$)

기간	계약액	월부금	납입총액	지급보충금	특별금리	지급총액
6개월	500	81.44	488.64	11.36	6.07	506.07
	1,000	162.88	977.28	22.72	12.14	1,012.14
1 년	500	39.68	476.16	23.84	10.99	510.99
	1,000	79.36	952.32	47.68	21.98	1,021.98
1년반	500	25.84	465.12	34.88	14.84	514.84
	1,000	51.68	930.24	69.76	29.68	1,029.68
2 년	500	18.92	454.08	45.92	17.93	517.93
	1,000	37.84	908.16	91.84	35.86	1,035.86

500불 이상은 500불을 기준으로 한 배수임.
높은이자율 13.97%

카나다 韓一銀行 토론토지점
HANIL BANK CANADA
●Toronto Main Branch P.O.Box 262 6960, 1 Canadian Place. Toronto M5X 1C9 (416) 865-0456
●Vancouver Head Office 2674 Four Bental Centre 1055 Dunsmuir St. Vancouver. (604) 681-2266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소수민족 가정불화 점증

메트로—토론토 지역내

토론토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소수민족들의 가정내에 가정불화와 폭력이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계 이민 가정내에서 심화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최근 한 전문가가 밝혔다.

메트로 경찰의 에트닉 담당관인 크리스토퍼·페르난데스씨는 오크빌 세리단·칼레지에서 열린 정기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에트닉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언어소통문제, 풍속의 차이, 외부의 간섭과 관심에 대한 공포등으로 도움얻기를 꺼려하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크빌 크라이시스센타(Crisis Centre)와 노스 홀턴센타의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가정문제 세미나는 각종 가정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매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가정문제전문가들은 가정내 아내구타에서 회생하는 피해여성들을 돌볼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찰당국도 가정문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앞서 폭행문제는 법적으로 다스릴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서적 150권 입하

노스욕의 욕우스도서관

메트로·토론토의 노스·욕시티 중앙도서관은 9일 잔하 욕우스(Yorkwoods)도서관에 한국책 150권을 배부했다고 발표했다.

노스·욕도서관의 한국책 구매및 분류담당관인 박성낙씨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된 한국책중에는 소설, 세계기독교사상전집, 생활요리, 미용식, 육아전서등이 포함되어 있다.

욕우스도서관의 위치는 1785 핀치·에비뉴·웨스트이며 문의전화는 630-9585.

라이온스클럽회장

이창복씨 선출

토론토한인라이온스클럽은 4일 콘로이호텔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준경회장 후임에 이창복씨를, 부회장에는 이억·김만구·최호영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캐나다당뇨병협회에 전달할 동전박스(Coin Box) 회수문제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라이온스클럽은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와 협조하에 실협회원 가게에 동전박스를 수개월전에 설치하고 현재 구역별로 회수중에 있다.

회수된 코인·박스는 모두 당뇨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캐나다당뇨병협회에 전달된다.

체전파견 하키선수 선발테스트

5일 웨스트우드체육관…55명응모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아이스하키협회(회장: 김충회)는 5일 웨스트우드체육관에서 내년도 본국동계체전에 파견할 선수단 구성을 위한 선수선발테스트를 가졌다.

이날 테스트에는 중등부 33명, 유년부 20명, 고등부 2명등 총55명이 응모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협회는 선수단 구성을 위한 12주간의 전체응모선수의 훈련을 통해 최종선수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중등부팀 지도에는 최명근씨, 유년부지도에는 이영복씨, 전체책임지도에는 말보로(Malboro)하키클럽의 매니저인 테리·웨어(Terry Weir)씨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동 협회는 현재 동계체전 출전팀을 단일팀 혹은 2개팀으로 할 것인가를 연구중에 있다.

유회자 오르갠문하생 발표회

15일 선교교회…입장료 무료

유회자 오르갠 문하생 발표회가 오는 15일 저녁 7시30분 선교교회(1 Greenland Rd, Don Mills)에서 열린다.

장소진, 장소연, 장운경, 기애경, 김혜진씨등 5명의 오르개니스트들이 연주할 이번 발표회의 연주곡목은 맨델스존, 바하, 리스트들의 작품과 고전 올갠작품들이다.

연주자들을 지도해온 유회자씨는 서울음대를 거쳐 오레곤주립대학에서 음악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토론토, 일본, 한국등지에서 수차례 오르갠및 하프시코드 연주회를 가진 바로크음악의 전문가이다.

유박사는 오는 6월에 로열·컨서버토리·오브·뮤직에서 오르개니스트 워크숍을, 오는 9월부터는 마스터 클라스를 가질 계획이다.

유회자 오르갠문하생 발표회의 입장료는 무료이다.

교민가게 강도침입

5~8일사이 3건

지난 5일부터 8일사이에 교민가게에 3건의 강도사건이 발생, 2건은 현금을 빼앗겼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466 도즈·로드(Dawes Road)에 위치한 비지·비(Busy Bee)버라이어티 스토어를 경영하는 윤명(Myung Youn, 31세)씨는 5일밤 11시경 2인조 강도가 침입, 돈을 털어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윤씨에 따르면 2명중 1명은 카운터 뒤로가 권총으로 위협, 현금을 털었으며 나머지 1명도 다른 카운터에서 현금을 털어 달아났다.

6일밤 10시45분경에는 안순희(45세)씨가 경영하는 맥스·밀크 스토어(19 Glendinning Avenue)에 역시 2인조 강도가 침입, 현금을 뺏아 달아났다.

안씨에 따르면 이들 강도는 카운터 뒤로가 안씨 팔을 잡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털어 달아났다.

8일 하오2시경 1541 오코너·드라이브(O'connor Drive)에 위치한 픽·퀵크(Pik-Kwik)콘비니언스 스토어에 강도1명이 들어왔다.

주인 김수길(45세)씨에 따르면, 카운터에 접근, 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빈손으로 도망쳐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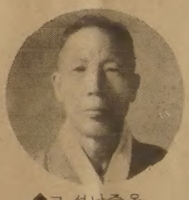
88세 고령자 성씨

교통사고로 사망

교포사회에서 고령자중 한분으로 알려졌던 성낙준옹께서 7일 밤10시30분께 사망했다. 향년 88세.

성옹은 이날밤 에그린톤·애비뉴와 워든·애비뉴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던 차에 변을 당했다.

장례미사는 10일(화) 상오11시 토론토 한인천주교회에서 있다.



◆고 성낙준옹

무역업에 종사하는 성원경씨(며느리 김명자)의 부친인 성옹은 70년 캐나다에 왔다. 건강은 좋은 편인어서 친구집에도 찾아 다녔으나 최근 잘 알던 길도 못찾는 일이 있었다. 성옹은 이밖에 손자 2명을 두었고 한국에 딸 5명이 있다.

성옹은 토론토 한인사회에서 최고령자로 알려져 왔다. 성옹이 다니던 한인천주교회 청년회는 8일 어머니날을 맞아 성옹을 장수노인으로 표창하려고 트로피도 만들어 놨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1면에서 계속〉

학자회의 성과 커

교민생활관계논문 발표

이번 학자회의중 가장 큰 관심을 끌은 논문중의 하나는 통계를 근거로 한 정희수박사의 교민생활관계 논문이었다. 정박사는 이 논문에서 한인들의 캐나다사회적응은 가정의 화목도및 교민활동의 참가도와 상관이 크므로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는 등록및 리셉션, 7일 논문발표, 평가와 질의토론및 오찬, 8일 학자회총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7일 논문발표 제1부에서는 김원겸박사의 사회로 알버타대의 오충열박사가 한국개발교육원(KEDI)과 알버타대와의 공동프로그램에 관한 논문에서 "KEDI는 한국의 과외공부를 대치하기 위해 교육방송을 담당하고 있으나 KEDI의 운영에 일관성이 없어 인적소모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카 양국교육기관의 교류가 보다 증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학윤박사의 "노바스코시아의 블루베리생산", 유봉열박사의 "뉴·브룬스위크의 감자생산", 이종섭박사의 "유전공학"에 관한 발표는 비전공자에게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개되었다.

교민생활에 관한 논문발표가 있은 2,3부에서는 오기총박사가 "교민단체운영상 문제"에서 목적및 참여의식 결여등을 지적했다. 김보경박사는 "인종차별"에 관해 발표하면서 다수민족집단과의 빈번한 접촉, 백인사회의 적극참여, 소수집단자신의 긍지확립등을 인종차별의 해결책으로 지적했다.

유회자박사는 자녀교육및 여성문제에 관해 발표하는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교민사회활동에 적극참여, 아이덴터티 위기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고 말했고, 윤리학 전공의 이수민박사는 이민자나 원주민이나 다 이방인으로 이 사회에서 건전한 삶은 자기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논평자로 나온 배학순 알버타대 정치인류학박사는 인종차별은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이며, 이민자들은 적응(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가 아니라 융화(Accomodation)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정영섭박사, 김봉환박사, 김정화씨, 신복균박사, 유재신박사등이 각각 맡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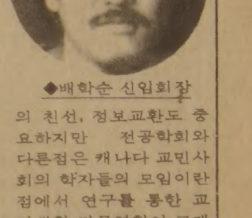
캐나다한인학자회는 72년 캐나다 한인학자들의 친목단체로 발족, 오기총, 윤태순, 유태호, 최태호박사등이 회장을 역임했으며, 회칙의 회원자격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학교수, 연구원(대학원생 포함),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및 동회의 목적에 뜻을 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회의의 경비는 연방정부 복합문화성, 오타와 대사관, 몬트리얼 총영사관과 무역관, 한일은행등의 지원금 1만여달러로 충당됐었다.

알버타대학 배학순교수

차기 한인학자회 회장피선

차기 캐나다 한인학자회 회장으로 알버타대학의 배학순(David Bae·정치인류학)박사가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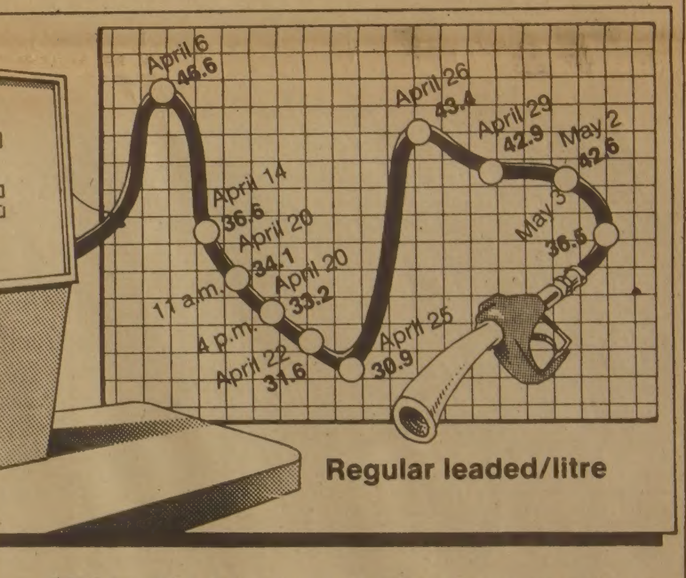
◆배학순 신임회장

제7차 학자회의 마지막날인 8일 아침 진행된 총회에서 회원들은 새로 선출된 배회장에 회의 목적과 회원자격에 관한 회칙 개정을 위임, 배회장은 앞으로 선정될 부회장, 총무및 김봉환(위니펙), 오충열(알버타)박사등을 위원으로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학자회의 운영방향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자회의 역할및 운영방침, 회원자격등에 관한 열띤 논쟁이 있었다.

신임 배회장은 "학자회의 역할은 학자들끼리의 친선, 정보교환도 중요하지만 전공학회와 다른점은 캐나다 교민사회의 학자들의 모임이란 점에서 연구를 통한 교민생활 자문역할이 크게 강조돼야 하며 다른 민족그룹, 캐나다 기관과의 교류등을 통한 연합체로 나아가야 할것"이라고 인삿말에서 밝혔다.

(배학순 신임회장 인터뷰기사는 11일자 본지)



◆한달새에 변덕을 부리고 있는 개솔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주유소의 주인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불의 사나이

<229>

헤로인 ㉔

비상망 폈으나 범인 행적은 끊기고…

마인은 초조해졌다。지서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두시간이나 지났는데도 김형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지서 순경이 받았다가 그에게 전해주었다。

『김형사님이 지금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읍니다。빨리 와주십시오。』

읍내 경찰서의 수사과형사가 걸어온 전화였다。마형사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고 몇마디 물은 다음 전화를 끊었다。

마형사가 병실에 들어섰을때 김형사는 멍거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그를 보고도 넋나간 표정만 짓고있었다。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도 쉬이 대답하려고 들지를 않았다。그의 부상은 심각한것 같았다。턱이 으스러져있었고 목뼈에도 이상이 있어 목에다 기프스를 대고 있었다。얼굴 주위를 붕대로 감싸고 있었고 호흡이 불규칙했다。

마형사는 김형사가 입원하게된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원장을 만나보았다。원장은 간호원을 불렀다。간호원은 처음 목격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

『어떤 사람이 택시에다 싣고왔어요。등산복 차림이었는데 입원수속을 마치고는 잠깐 다녀올데가 있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입원수속이라니 그사람이 입원비를 냈다는 전가요?』

『네、20만원을 내놓고 갔어요。』

마인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를 자세히 물어 기록했다。간호원의 말은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말로 귀착했다。

『입원시킬때 그사람이 카드 작성하지 않았나요?』

『네、했어요。』

마형사는 그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거기에는 입원환자 미를 김대식(金大植)이라고 적어놓았고 보호자의 이름은 김철(金哲)로 되어있었다。마형사는 그카드를 회수했다。

병원을 나온 그는 경찰서로 가서 사정을 이야기한 다음 운전사 수배를 부탁했다。시골이라 택시운전사라야 불과 스무명도 못돼 환자를 실어다준 운전사를 찾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다。그운전사는 수배가 내린지 한 시간도 못돼 동료 운전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경찰서로 자진 출두했다。

『…배부른 아주머니를 싣고 양지 마을로 갔지요。그때가 12시 가까이 됐을겁니다。마을에 거의 도착했을때 눈밭에 한사람이 쓰러져있고 그옆에 또 한남자가 서 있었지요。그 사람은 큰 키에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면서 빨리 병원에 실어다달라고 하데요。사람이 죽어가는데 거절할수도 없고 해서 아주머니한테는 얼마 안남았응께 걸어가라고 해놓고는 그 사람하고 환자를 태우고 읍으로 왔지요。그리고 그 사람이、환자를 병원으로 메리고 들어가는것을 보고 저는 떠났지요。』

운전사는 등산복 차림의 그 사람이 매우 점잖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차비도 후하게 내놓았다고 하면서 매우 호의적 이었다。

뒤늦게 비상망이 펴졌다。자세한 인상착의가 알려진 가운데 검문검색이 실시되었지만 범인의 행적은 눈에 덮인듯 뚝 끊어져 있었다。

마인은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다。그대신 그는 다른 것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그런데 연락이 오려면 아직 몇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다。그는 그때까지 김형사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朴男 그림

부고

저희 선친 성낙준(영세명 네오) 옹께서 83년5월7일 밤10시30분 별세하셨기에 부고합니다.

장례미사 : 83년5월10일(화) 상오11시
장　　소 : 한인천주교회 (83POWER ST.)
주　　례 : 황상근신부

유가족　아 들 성원경
　　　　며느리 성안나(김명자)

친지대표 김지일

공　고

재캐나다 대구공고 동문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문제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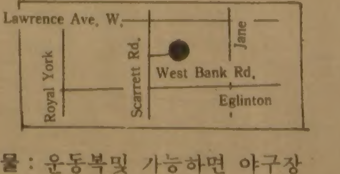
일　시 : 1983년 5월27일(금) 저녁 8 : 00
장　소 : 44 Deepdale Dr. Scarborough
연락처 : 이동환 751-5851 (757-6711)
MR. 허 298-4099
MR. 김정수 638-5530
MR. 정용태 762-3247
MR. 박시화 413-3038

대구공고동창회

중동동창회

본 중동동문회에서는 새봄을 맞이하여 친목겸 6월중 개최되는 고교대항체육대회에 참석코저 아래와 같이 모임을 갖고저 하오니 동문제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동반 환영)

일시 : 5월14일(토요일) 오전11시
장소 : RAY MORE PARK



준비물 : 운동복및 가능하면 야구장비 지참
※식사및 음료수는 동문회에서 준비함.
※우천시에는 회장님댁에서 모임.

중동동문회장 홍사겸

공　고

대한민국 새마을본부에서는 토론토 한인교포를 위해 모국 산업시찰및 관광을 주선, 약3주간 모국체재시 모든 편리를 무료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비행기편은 KAL편을 30% 할인해 드릴것이오니,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라겠읍니다.

◎기간 : 6월20일까지
◎인원 : 20명(선착순)
자격 : 이민6년이상자

토론토 연락처 구본무
(B)531-6430 · (R)746-3712

대한민국 새마을본부

해외협력부장 최성락
본 부 장 전경환

▲피납된것이 아니라 관광여행(?)—중공여객기 승객들이 6일 춘천에서 서울 쉐라턴·워커힐호텔로 옮겨졌다. 이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한복을 차려 입은 호텔종업원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서울 〉

대만에 망명가능성도

중공이 납치범에대한 정보를 제공 안할 경우

중공과 한국 협상자들은 8일 납치범들을 한국재판에 회부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사법지원협조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한국의 사법관계자들은 9일 말했다.

납치범들은 중공에서 범행을 음모했기 때문에 중공당국은 한국에 납치범들의 인적및 범죄기록과 조사결과, 중공의 관계법규정에 관한 정보등을 보내야한다.

만약 중공이 이러한 협력을 거부한다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그들의 요구대로 정치적망명이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과 기타 항공기납치범에 관한 국제규약에 이들에 대한 분명한 처벌조항이 없으며 한국내에도 이와같은 국제협약에 준하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무슨 법규정을 적용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현재 상황하에서는 한국은 형법이나 항공운수안전법을 적용해야될 것같다.

헤이그협약에는 중범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망명자에 대해서는 특별고려를 해야한다는 세계인권선언및 기타 국제협약의 정신에 따라 경벌에 처할수도 있다.

이들 6명의 중공납치범들은 중공의 「폐쇄사회」를 탈피하기 위해 대만으로 항공기를 납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들이 무슨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야할 것이다. 만약 이들 납치범들이 중공협상팀이 주장한 것같이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뒤 탈주할 목적이었다면 중공측은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한국법조계에서는 말했다.

▲여객기 창문을 통해 2명의 중공인이 기지를 내다보며 신기한 표정을 짓고있다. 또다른 승객은 신문을 보는등 여유를 보였으며 구경나온 시민들이 손을 흔들자 여객들도 손을 흔들어 답례. 〈춘천 〉

관광

납치범들에 의해 한국에 착륙한 중공 민간항공기 탑승객들은 서울로 이송된 4일째인 8일 서울대학교와 용인가족대공원을 관광했다.

이날 오후 남한강유역의 「늘봄식당」에서 로스트 비프와 국수로 점심을 마친 이들은 2시 서울대학교를 방문, 현황을 청취한 후 규장각 도서관에서 한문서적을 소개받았으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대학당국은 그들에게 서울대학 상징메달과 대학소개책자를 증정했다.

용인공원에서는 호암박물관을 방문 고전예술을 감상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견학했다.

한편 7일에는 서울근교의 산업시찰에 나서 잠실종합체육관, 삼성전기, 기아산업등의 시설을 견문관광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남쪽, 중앙청, 여의도등을 관망했다.

수원의 삼성전기를 방문한 그들은 전자제품의 대량생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회사측은 각자에게 시계가 담긴 계산기 1대씩을 기념으로 증정했다.

이들은 또한 체류5일째인 9일 오후 새마을운동 본부를 시찰했다.

숙소인 세라톤워커힐호텔에서 40분정도 떨어진 본부에 도착 연수중인 500여명의 중고등학교교장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들은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새마을운동의 현황을 소개받았다.

평양착륙실패

(서울본사전화)피납된 중공여객기는 춘천에 오기전 평양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정부당국자가 밝힌 중공여객기 한국착륙과정은 다음과 같다.

5일 상오8시15분 신양을 이륙한 여객기는 고장으로 되돌아갔다가 상오 10시 다시 이륙하여 상해를 향해 1시간정도 비행했다.

이때 대련상공에서 납치범들은 조종석을 점거하여 조종사에게 대만으로 갈것을 요구해 조종사는 기수를 북한으로 향해 평양상공에서 착륙을 시도, 평양상공 3회나 선회했다.

범인들은 다시 조종사들에게 서울로 가자고 요구했다.

대련상공에서 범인들은 조종석의 열쇠를 권총으로 쏘아 이를 부수고 점거했다.

여객기가 남하하는 동안 북한 공군의 전술적 초계나 지상견제는 전혀 없었다.

휴전선을 넘은뒤 북한공군기가 초계이륙했다는 것이 우리방공망에 포착됐다.

납치순간의 총격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여객기의 항법사와 무전사로 밝혀졌는데 모두 다리에 관통상을 받고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3명의 여자가 포함된 9명의 승무원과 무장납치범을 제외한 일반승객들은 5일밤은 춘천에서 묵고 6일하오 서울의 워커힐호텔로 옮겨졌다.

국내선여객수송기

(서울본사전화)이번 착륙한 중공여객기는 지난 67년7월 영국이 처음 제작한 BAE트라이던트 2E와 동형의 중단거리수송용으로 알려졌으며 외형상으로 볼때 TU154와 기종이 비슷하다.

중공은 지난 78년도에 구입 주로 국내선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트라이던트기는 전장 43.9미터, 높이 8.23미터 승객1백15명이 탈수있고 시속9백65킬로, 최대순항거리 4천25킬로미터이며 전세계에 현재 50대가 있다.

TV뉴스로 안 이장관

이범석외무장관은 5일 중공여객기의 납치사건에 대하여「현재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해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동시험받아

납치범들에 의해 피납 춘천근교비행장에 착륙할 당시 일부 땅에 묻혔던 중공항공기가 견인차에 의해 진흙땅에서 활주로로 이동되었고 약 3시간동안의 가동시험을 받았다.

한·중 비행정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연합조사팀은 비상이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항공기 바닥에서 6군데의 탄환구멍도 확인했다.

보잉 727과 비슷한機種

(서울－UPI)중공민간여객기로서는 최초로 공중납치된 「중공민항」소속 제트여객기 기종은 보잉 727제트여객기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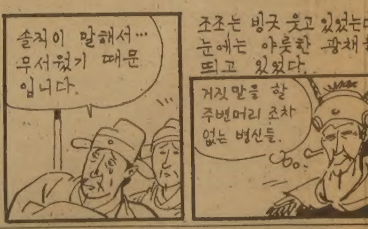
중공에서는 과거 상해노선에서 두번의 공중납치사건이 발생했으나 실패했으며 납치범들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방문중인 센·루 중공대표단 단장.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三國志 641

글·高羽榮·그림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Mirage Boutique
어머니날 대매출
50% SALE
5월2일(월)부터 14일(토)까지
숙녀복 전문집
미라지
676 BLOOR ST. W. (한국비데오옆)
☎ : 530-1870(권수희)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서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교역자청빙
본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역자를 청빙코자 합니다.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1매 (영문및 한글) 사진1매(반명함판)
● 기 일 : 1983년5월20일까지
● 보내실곳 : 18 Creighton Dr. Dundas, Ont. L9H 3P7 최태호 장로
해밀톤 한인연합교회
교역자 청빙위원회

매력적 악세사리로 각광받는

안경

▲얼굴형에 맞는 안경선택과 화장술은 안경을 멋진 악세사리로 만든다. 근시안경을 쓴 여성은 눈화장을 강조하도록.

양볼을 덮는 안경테는 절대 고르지말라
색깔있는 렌즈는 아이새도우色에 변화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쓰는 안경이 매력적인 악세사리로 등장하고 있다. 렌즈와 안경테가 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콘텍트렌즈를 사용하던 여성들이 다시 안경을 찾을 정도.

옛날의 커다란 올빼미 스타일의 안경테대신에 가볍고 섬세한 테에 안경렌즈도 보석같은 색조로 은은하게 만든 안경이 유행하고 있다. 렌즈의 색이 한가지색으로 된것이 아니라 위는 밝은 갈색으로 시작하여 밑부분은 핑크색으로 점차 음영이 바뀐다. 이것은 뺨의 홍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것. 또 어떤 렌즈는 머리위의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윗부분이 쭉 옆으로 연한 회색을 띤것도 있다.

미용전문가가 들려주는 안경선택과 미용비법을 몇가지 소개해 본다.

▲안경은 어떤형의 얼굴이든지 머리가 커보이게 만든다. 이것을 카버하기 위한 유일한 메이크업이 립스틱사용. 항상 입술화장을 잊지 말도록.

▲양볼을 덮는 안경테는 고르지 말것.

▲렌즈가 아주 두껍거나 이중초점안경이면 연한 칼러의 렌즈를 택하도록.

▲원시용 안경은 눈과 그 부근의 주름살을 확대시킨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작은 안경테를 고를것. 또한 연한 색조의 화장을 할것.

▲근시용안경은 눈을 더 작게 보이게 하여 아름다운 눈이라도 돋보이지 못한다. 이를 카버하기 위해서는 눈꺼풀 위아래를 아이라인으로 깊이를 준다.

▲색깔이 있는 렌즈는 아이새도우의 색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아이새도우의 색깔과 렌즈의 색깔이 중화될 수 있도록 메이크업을 하는것이 좋다. 핑크빛렌즈에 초록색 아이새도우와 같은 강한 대조는 금물.

▲안경의 선택에서는 자신의 얼굴형이 중요하다. 계란형의 얼굴에는 사각이나 각진 렌즈를 선택하고, 삼각형의 얼굴에는 (턱이 넓고 이마가 좁은 경우) 넓은 테의 안경을 사용, 이를 보완하도록.

부드러운 곡선의 안경은 사각형의 각진 얼굴에 적합. 이마와 턱이 넓고 광대뼈가 넓게 나온 다이어몬드형의 얼굴은 넓은 렌즈를 피하고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둥근 형의 렌즈를 택하는 것이 좋다.

◆약간 쌀쌀한 날씨도 아랑곳 없이 두 여인이 아파트 뒷 정원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비키니차림이지만 건강해서 감기가 들리지는 않는듯.(토론토)

〈연재소설〉

혼돈 ⑱

글·이대준 그림·최미정

제2편 착수

김사장은 집의 뒷쪽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애자는 씽긋 웃어보이고 차에 올랐다.

"피곤하지요?"

"피곤한 것보다도 잠을 잘 못자서 머리가 무거워요"

"그건 시차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한참지나면 적응이 되지요"

김사장은 서서히 차를 몰았다. 검은색의 캐딜락은 김사장만큼이나 거드름을 피우며 시내를 빠져나갔다.

"나이아가라폭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상상을 하지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보고 실망을 하니까요"

"왜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대부분의 관광지가 그렇듯이 실제보다는 과장으로 선전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럼 별것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런뜻은 아니지요. 어마어마한 폭포이지만 우리는 너무 과장되게 배웠고, 또 폭포를 굽어보게 지형이 되어있어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는 도시의 풍경을 스산스럽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나라는 가을단풍이 또한 가관이지요"

"카나다의 가을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나는 벌써부터 졸고 있었다. 밋밋한 평야와 도시 사이를 변화없이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밤잠을 못잔 나를 나른한 잠속으로 몰고 있었다. 끄떡끄떡 졸다가는 소스라쳐 깨어나고, 다시 끄떡끄떡 졸고, 나는 끝내 비스듬히 창문쪽으로 기대어 잠에 떨어져 버렸다.

얼마나 잤을까? 거의 의식이 없는 깊은 잠의 늪속에서 부상해서 선잠을 자고 있을때 투박스러운 손이 나의 몸을 더듬거리고 있는 것을 느꼈다. 진동이 없이 미끄러지듯이 달리던 차가 불규칙하게 흔들거렸다. 그러나 나는 계속 자는척 하고 있었다.

〈김사장님 나는 압니다. 당신이 나를 나이아가라폭포를 미끼로 끌고 나온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을 채워 보려는 음모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독백을 하며 김사장의 손길을 받아주고 있었다. 가슴을 더듬거리던 행위가 멎고 김사장의 뜨거운 얼굴이 나의 얼굴을 덮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얼굴을 피해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차가 균형을 잃고 심하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뜨고 벅찬 호흡을 진정시켰다. 벌겋게 상기된 김사장의 얼굴에는 불만이 서려있는 것을 나는 옆눈으로 볼수 있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차소리가 윙윙거릴뿐 침묵이 흘렀다. 누구든지 입을 열어 어색해진 분위기를 무마하지 않는 한 서로 불편한 상태는 계속될 것 같았다.

"애자는 왜 그래요? 내가 알아서 뒷처리는 다 해줄텐데"

무겁고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김사장이었다.

무슨 뒷처리를 어떻게 해준단 말인가? 나는 김사장의 내심을 파악할수 없으므로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다.

남성들은 애욕을 채우기 위하여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나는 서울에 있을때 중국집에서 먹어 보았던 공갈빵을 생각했다. 겉모양은 크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지만 군침이 돌아 한입 씹어보면 속은 텅 빈것이었다.

김사장은 지금 나에게 공갈빵의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넘겨짚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냉담할 수 만을 없었다. 대어는 죽은 낚시밥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살아있더라도 꿈틀거려 반응을 보여야 의심없이 덜컥 삼키니까.

어떻게 꿈틀거릴까? 어떻게 하면 김사장이 의심없이 한 입에 삼켰다 토해낼 수 있게 할까?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있는 것은 김사장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일것이고, 서투른 연기보다는 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도록 김사장은 운전만 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나이아가라 시내지요"

차의 속력이 줄고 있다고 느꼈을때 김사장이 입을 열었다. 나는 눈을 떴다. 생각보다는 한산한 시내엔 그저 그렇고 그런 건물들이 서있을뿐, 눈길을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가 폭포의 앞길을 달릴때야 비로소 관광지라는 실감이 났다. 형형색색의 인종들이 폭포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이슬비처럼 내리는 음침한 거리를 무질서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은 나에게는 생소하고 이색적인 것이었다.

나이아가라폭포, 그 우렁찬 소리가 십리를 울린다는 나이아가라폭포를 나는 속히 보고 싶었다. 그러나 김사장은 폭포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계속 차를 몰고 있었다.

"폭포는 싫증이 나게 구경을 할 수 있을테니까 서두르지 말아요"

김사장은 엄격한 어투로 나의 조바심을 눌러버렸다.

차는 폭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의 호텔에 이르러 멈추었다.

"애자씨도 시장하고 나도 시장하니까 우선 뭐 좀 먹고 봅시다"

나는 김사장을 따라 호텔로 들어갔다.

김사장이 카운터로 다가가 얘기를 주고 받는 동안 나는 호텔실내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화려하리라고 생각했던 예상과는 달리 수수한 장식들이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올라갑시다. 맨 윗층에 식당이 있답니다"

나는 김사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김사장의 짧고 굵은 손가락이 11의 숫자를 찍어눌렀다. 삐걱거리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 3, 4레벨의 숫자판에 수순대로 불이 켜졌다 꺼지며 엘리베이터는 상승하고 있었다. 7층에서 중단없이 오르던 엘리베이터가 덜커덩서며 문이 열리고, 양쪽귀에 리시버를 낀 검둥이가 들어왔다. 몇천년전의 원시인의 골상을 한 그는 들어오면서부터 몸을 흔들며 스탭을 밟고 있었다. 리시버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계속)

벌겋게 상기된
김사장의 얼굴에는……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LET'S GIVE HIM A BIG HAND.

어느 사업을 하는 분에게 Let's give him a big hand.를 우리 말로 옮겨 보라고 했더니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큰 손을 줍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정이 어려운 그 사람에게 「자본주를 대주자는 뜻」이라고 해설까지 곁들여서 풀이를 해 주셨는데 to give one a big hand란 「~에게 큰 손을 주다」가 아니고 「박수치다」라는 일상 용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관용어이다.

to give one a big hand를 넣어서 표현해 본다면 「그 여가수의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는 After the singer finished her song, the audience gave her a big hand.라고 하면 되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은 갈채를 보냈다」는 As the Asian game gold medalist appeared before the crowd, people gave him a great big hand.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standing ovation이란 훌륭한 연설이나 연주회가 끝났을 때 관중이 모두 일어나서 보내는 「기립 박수」를 뜻한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마쳤을 때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를 옮겨 본다면 When the President finished his speech before congress, they gave him a standing ovation. 이와 같이 하면 된다.

A: The performance given by this group was sensational.
B: Let's give them a big hand.
A: They've had to work long hours to pull this off so well.
B: Oh, there's no doubt about it.
A: Did you know they're from our hometown?
B: No, I didn't know that.

A:이 그룹의 공연이 선풍적이었읍니다.
B:그들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A:이렇게 훌륭히 연주해내기 위해서 오랜시간을 노력했읍니다.
B: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A:그들이 우리 고향 출신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B:아니오. 몰랐어요.

※performance:연주, 공연.
Ex. No Entrance During Performance. 상연중 입장금지.
※pull off:성공하다, 잘 해내다.
Ex. Mr. Yi pulled off the impossible by winning three golf tournaments in a year. 미스터 이는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1년에 3번이나 골프터-너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ovation(오우베이션):대환영, 대갈채.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rt on Grove Ill 60053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illegible] 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 966-4050

개업5주년 기념 할인 대매출

◈각종 가와이 피아노 $2,500부터
◈전자올겐 $1,600부터
◈BONTEMPI올겐 $695부터
◈야마하 PORTABLE(소형)올겐 $175부터

☆은행융자를 이용한 6개월~2년간의 저 이자 할부판매를 실시합니다.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國會法 개정」 계속 論議

어제 3黨3役회담 政治현안 절충

「地自制小委」등 활성화 「運營제도小委」로 개편合意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4일낮 국회의장실에서 3黨3役회의를 갖고 4월말로 처리時限이 끝난 國會法개정문제와 지방자치제실시 및 언론기본법개정문제등 계류중인 政治議案의 처리를 위한 절충을 시도, 국회運營委산하의 國會法개정안심사小委를 「國會운영제도연구小委」로 개편하고 국회법개정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3黨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가 참석한 이날 3黨3役회의에서는 「國會운영제도연구小委」의 구성및 활동時限과 운영방안은 앞으로 3黨총무가 계속 협의하여 결정키로 위임하는 한편 야당측이 요구한 다른 政治議案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위와 문공위에 각각 설치되어있는 地自制관계심사小委와 언론기본법개정안심사小委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與野간 이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가 끝난후 李鍾贊民正黨총무는 『4월말로 時限이 잡혀있던 國會法개정안심사小委를 국회운영제도연구小委로 발전적 개편을 단행하고 이小委에서는 民韓·국민당이 제출한 國會法개정안을 포함한 국회운영의 모든문제를 공동연구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民韓·국민당측은 새小委의 활동時限을 이날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民正黨은 小委활동을 계속하면서 총무회담을통해 활동시한문제를 절충하자고맞서 時限과 운영문제가 총무회담에 위임됐다』고 말했다.

李총무는 『국회내무위의 地自制小委와 문공위의 言基法小委위원들이 대폭 교체된것을 계기로 앞으로 이들 小委의 활동을 더욱 적극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5월말이나 6월초에걸쳐 제117회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문제를 협의,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앞으로 총무회담을 통해 소집시기, 의사일정등을 再論키로했다.

또한 民韓·국민당은 국회법및 언론기본법 개정과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公聽會를 열것을 주장했으나 民正黨측은 『국회법은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률규정이므로 공청회 대신 각계인사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도록하자』고 제의하여 결론을 내리지못했다.

이날 民韓黨은 정치被규제자의 追加解禁과 구속학생의 석방문제등도 거론했는데 民正黨은 『정치解禁은 이미 규제자의 절반이 풀렸고 이문제는 최고통치권자의 정치적결단사항』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국민당은 常委의 豫算심의권復活을 포함한 국회법개정과 地自制실시및 糧穀관리법 개정문제등을 금년내 처리하기위해 各黨의 사무총장과 총무등으로 3黨6人協議會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담소하는 李外務와 레이건 訪美中인 李範錫외무장관이 3일백악관으로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을예방, 얘기를 나누고있다. 【워싱턴 3日AP電送=聯合】

"對韓방위公約은 확고"

레이건, 李外務에 다짐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레이건美대통령은미국정부와 국민은 현재의 韓美관계를 매우 소중히 알고 있으며 한국에대한 방위공약의 준수는 확고한것임을 다시한번확인한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3일 상오 李範錫외무장관을 맞은 자리에서 이같이말하고 南北최고책임자의 대화를 통한 南北접촉을 추진하고있는 한국의 자세를 미국은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미국의對北韓정책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뿐아니라 한국의 참여없는 어떠한 접근도 없을것이라고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어 한국국민이 이룩한 성장에 놀라움을 금치못한다고 말하고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동맹국이라고 거듭강조했다.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부시부통령, 댐국무장관대리, 클라크 안보담당보좌관등이 배석한 이자리에서 레이건대통령은 극동지역에있어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언급, 한국국민은 이를 더실감있게 느낄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소련에대해 더강력한 대처를 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이에李장관은미국의지원과 지지에 감사한다는 뜻과 全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全대통령은 對共産정책에 강력대처해나가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전폭지지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면담이 끝날무렵 레이건대통령의 訪韓을 다시한번 요청했고 레이건대통령은 이에 『캘리포니아知事시절 한국을 방문한이후 한국을 본일이 없으며 성장한국을 보기위해 틈나는대로 訪韓하고싶다』고 訪韓의사를밝혔다.

올 輸入自由化率 82%

86년까지 90%로 4백여品目 規制풀어

◇ 全斗煥 대통령이 무역진흥월례회의가 끝난뒤 회의장안에 전시된 電子部品을 살펴보고있다. 【崔東完기자 찍음】

정부는 올해중 와이셔츠와 넥타이를비롯한 섬유제품과 혁대 지갑 면도기 안경테등 4백여개품목을 수입규제대상에서 풀어 연말까지 수입자유화율을 현재의 76.6%에서 82%로 높이고 오는86년에는 선진국수준인 90%이상으로 자유화율을 높일방침이다.

★해설 4면

이와 아울러 「不況産業整理法」을 제정, 에너지과다소비·원자재구득난등으로 경쟁력유지가 어려운 전기로, 알루미늄, 화학비료등 구조적불황산업과 공해산업의 정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상오 黨政협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를 잇달아 열고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80년대 산업정책과제와 지원시책개편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수입자유화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나 농수산물 수입개방등 일부문제에 대해 의견조정이 끝나지않아 결론을 내지못하고 보류됐다.

"輸出절차 改善돼야"

全대통령, 무역진흥 月例회의서 강조

全斗煥대통령은 4일 정부와 기업은 물가안정의기반위에서 기술혁신, 품질과 생산성향상, 수출절차개선등 수출신장을위해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다지는 다각적인 조치를취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중앙청에서 무역진흥 月例회의를 주재, 이같이 강조하고 『수출절차의 경우 우리의 경쟁상대국에 비해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기업이 기탄없는 의견 교환등을 통해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수출지원제도면에서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을 앞지를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야한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수입자유화문제와 관련, 『우리의 힘으로 국산화가안되는 제품에 대해 상당기간 계속 수입을 규제하는것보다 과감하게 수입규제를 푸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히고 『수입규제를 풀경우 국내業體는 당분간 苦戰을하겠지만 이들 외국제품을보고 비교·검토해 품질을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계기가 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洪舜基씨(54·南洋漁網공업대표)에게 새마을훈장 協同章을 주었으며 이어 회의장 안에 전시된 자동차및 電子部品들을 돌러봤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은 자란다

5일은 어린이날. 어린이들의 티없이 맑고 환한 웃음속에 내일을 향한 이 사회의 희망이 깃들여있다.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4일 서울시내 각국민학교어린이들은 오전수업만했거나 운동회등으로 마음껏 뛰고즐겼다.

佛敎·鄕校 재산관리법

民正, 政府에 철회요청

民正黨은 文公部가 추진하고있는 佛敎재산 관리법 개정안과 鄕校재산관리법 개정안이 많은 문제점을내포하고 있다는점을들어 정부측에 이를 철회하도록요청했다.

民正黨은 이들 法案에대해 文公部와 협의한결과現行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개정할필요가없다고 이를 철회할것을 통고했다.

鄭石謨정책위의장은『寺刹·鄕校재산의 관리통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수있을뿐 아니라 기독교에는 이런 법이 없는데 佛敎·儒敎재산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衡平에 어긋나고 자칫 종교에 대한 公權力의 간섭이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罰則조항이 문화재보호법·자연공원법·民法등과 균형이 맞지않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안대로라면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불교재산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대해 불교계는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으로 맞설 자세를 보이고있다.

曹溪宗중앙총회의장 徐義玄스님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사찰재산을 공개할 수 있고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옥상옥의 악법을 만들려는것은 이해할수 없다』고말했다.

총무원측은 개정시안 가운데 사찰재산을 공개하거나 문화재보수비를 전용하도록한 항목은 매우 좋으나 불교단체의 미등록죄에 2년이하의 징역, 境內영업행위죄에 1년이하의 징역등을 과하기로 한것을 재고해줄것을 요구하면서 종단자체에서 시안을 작성, 문공부와 절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공부관계자는 사찰과 향교등 전시대가 물려준 민족공유재산을 퇴락하지않도록 잘 보존하자는데 뜻이 있을뿐 특정종교기관을 간섭하기위해 개정안을 마련한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괌島배치B-52G機 SRAM 장치

【東京=宋孝彬특파원】美공군당국은 괌島에 새로배치되기 시작한 신형B52G전략폭격기에 1톤급 단거리공격미사일(SRAM)이 장착돼있음을 확인했다고 4일 共同통신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공군당국자는 이어 SRAM은 소련이 극동에 배치한 중거리미사일 SS20에 대행、그것을 파괴하는것이 주임무가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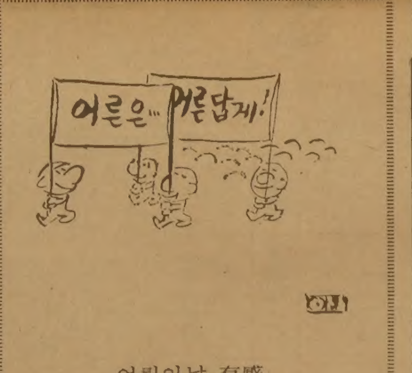
B52G型은 B52D型을 개량、SRAM20基를 적재하는 최신형폭격기로 극동지역일대를 정기비행한다.

미사일 적재잠수함을 太平洋해역에 이미 순항배치해두고있는 미국은 이로써 海空양면에 걸쳐 소련SS20을 견제하는 체제를 갖추게된다.

오늘 어린이날, 내일字 休刊

新聞協會결의에 따라 5월5일 어린이날 休務로 내일字 신문은 休刊합니다.

社會漫評



어린이날 有感

地平線

핑크빛 카네이션 꽃이 화사하다. 어린이날인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은 성년의 날, 글피는 어버이날 등 가정의달 행사가 줄을 잇는다. ▼어버이날에는 고사리 손이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카네이션 한송이를 사서 어버이에게 바친다. 언제부터 이관습이 생겼는지는모르지만 報恩, 慈愛의 뜻이 담긴 카네이션은 국내서도 金海등지에서 사철내내 대량재배, 5월 한달동안 거의 10만송이가량 팔리게 됐다한다. 아름다운 현상이 아닐수 없다. ▼카네이션엔 향기는 별로 없지만 우리네 어버이들의 수수한 사랑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알고보면 카네이션꽃엔 원래 짙은향기가 있었다. 앙드레·지드의「앙드라 기행」에도『말할수 없을 정도로 싱그러운 향내, 섬세한 카네이션』이란 말이 나온다. 그중에는 조미료인 후추를 갈때 나는 향기와 비슷한내음을 풍기는것도 있다. ▼자녀들이어버이에게드리는 카네이션이 이토록 향기가진하면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오히려역겨워하기도 쉽다. 아마 꽃은 자란 풍토에따라 향기가 다른 모양이다. 요즘 한물이 갔지만 5월은 라일락꽃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 강한 내음을 풍기는 라일락을 프랑스에선 리라라고 부른다. 봄바람에 실린 달콤한 라일락향내를 맡으면 말할수없을정도로 기분이 부드러워지는데 프랑스에선 그와 더불어 강한흥분마저느끼는 모양이다. ▼新羅善德女王이 漢土에서가져온 牡丹을 보고「此花絶艶 而圖畵又無蜂蝶 必無香花 種植之果如其言」이라하여 그 明敏을 높이평가받아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天香은 뛰어났지만 아침에는 파랗고 저녁에는 노랗게 빛이 변한다하여 楊貴妃를 극진히 사랑한 唐玄宗이 臣下에게 주어버렸다는 牡丹도 風土에 따라 향내가 생겼다 없어졌다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가정의달을 맞아 카네이션과 수수한 어버이의 사랑, 그리고 나비가 춤추는 牡丹등 5월의 향기를 함께 생각해 본것이다. 또 무턱대고 향내가 강한것만이 좋은꽃은 아니고 제땅풍토에 알맞는 것이라야 사람을 오래오래 반길수 있을 것임을 여기 새겨두고 싶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한국의 하나뿐인 여성週刊誌!
●단연 部數도 정상、내용도 頂上!

주간女性

새 시대를 사는
현대 여성의 다정한 벗!

컬러畵報
立體편집

구독신청 · 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구독 신청서
지방구독자 $2.50+90¢(우송료)
NAME ....
ADDRESS .... APT ....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할렐루야

메시아한인교회
창립제1주년

1982년5월 첫 주일 메시아 한인교회를 창립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영과 육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어 국내와 국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선포하도록 협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 멘.

메시아 한인교회 교인 일동

韓·美「緊密度」더욱 높여

議會의 對韓자세 好轉계기
北傀위협 공동대처 뚜렷이

——李외무 訪美 6일의 成果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국방 의회 상하원 지도자등 미국의 각계인사와 광범한접촉을가진 李範錫외무 장관의 訪美는 4일 멜빈·프라이스 하원군사위원장과의 면담을끝으로 워싱턴 일정을 끝냈다。슐츠국무의 초청에 의한 韓美외상회담을 계기삼아 이루어진 이번 訪美는 몇가지 특징지울만한 점이있다。

그것은 이제까지 한미접촉이 흔히 현안의 해결이나 유대관계의 개선에주안이두어졌던 것에비해 이번 접촉은 이미 궤도에 올라있는 양국관계의 지속내지 그質의 격상에 촛점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李외무의 訪美면담을통해 미행정부측은 결속과 방위공약의 재확인은 물론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국의 이니시어티브 내지입장을 더명백히 지지했고 이런점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말했을뿐 아니라 의회측은 李장관과의 광범한 접촉을통해 행정부측의 對韓지원과 결속에대해 더광범한 이해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訪美기간중 美행정부가 뚜렷이 선을 그어 밝힌것중의 하나는 그간 많은 논의가 계속돼왔던 남북한교차승인과남북대화에 관한우리의자세지지이다。

케네드·댐 국무장관대리와의 한미 외상회담에서 미국측은 교차승인은 주변여건으로보아 시기가 성숙치않았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지난2월 슐츠중공방문을 계기로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있었던 교차승인문제에 쐐기를 박았다。

한미외상회담에 참석했던 한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측은 미·소·중·일 4强에 의한 남북교차승인은 분명 한반도긴장완화의 한 방법이긴하나 75년 이문제가 제기되던 당시와는 중·소、미·중공 심지어 북한과 중·소와의관계가 모두 변했을뿐 아니라 교차승인에 이르기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비공식적이고 단계적인 교차적 접촉의확대가 선행돼야함을 분명히했다는 것이다。

사실 美행정부는 그간 기회있을때마다 이러한 단계적 비공식접촉의 확대를 역설해왔었다。즉 4강 어느쪽이든 자기이익을 위해 남북한을 그대상으로 이용할수는 없으며 또 이런 상황에서 교차승인이란 문제가 진행돼서도 안되며 교차승인이전 어떤것이건 남북한 긴장완화는 당사국인 남북간에 먼저 완화의 징조라도 보여야한는것이 가장 긴요한단계라는 점을명백히 밝혀준 것이다。

이와관련해서 또하나 분명히 밝힌것은 남북문제해결에있어 남북간 최고책임자의 대화등 우리측의 접근방식에 미국이 또다시지지를 표시했다는점이다。이런 지지는 그간 미국이밝혀왔던 태도이긴하지만 한미외상회담이란 계기를 이용、다시 밝힌것은 대외적으로 이를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남북문제에서 야기될수있는 혼선이나 오해를 사전에 봉쇄해버리자는 것으로 풀이될수있을것같다。

따라서 이같이 남북문제에 관해 두가지 중요이슈에서 우리입장을 지원해준 점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라는 문제와함께 한미결속의 질의 격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특징지울만한 또 다른것은 광범한 對의회접촉 對의회설득을 드디어 본격출범시켰다는 점이다。

李장관은 약1주일 워싱턴에 머무는동안 상하원의 중요인사 60여명과 만나미행정부의 한국지원 결속다짐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그간의 對美외교란 행정부일변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것은 미국의 정치구조 이해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그간의 긴박한 한미관계、여러 주변여건등이 이런 선에 머무르게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교방식은 실효면에서 큰 차질을 가져왔고「한미관계가 아주 훌륭한 상황」이라고 의회에서 까지 나오는 이싯점에서 뒤늦게나마 對美외교에 對의회외교를 추가하게 된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있다。

물론 의회의 對韓태도변화는 먼저「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행정부측의 줄기찬 설명에도 원인이있지만 한미관계의 실체가의원들에게 더호소력이 있는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이들은 보고있다。

지난번 하원외교위 아시아 태평양소위원회 솔라즈위원장이 행정부의 FMS요청안에 1천만달러를 추가 승인해준 것도、여기에 한국의방위노력국내문제개선노력을 지적한것도 의회가 한국에 대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가장 단적으로 표시해준 예이다。

결국 李장관의 訪韓뒤에 남은것은 이러한 격상된양국무드를 지속할수 있도록 국내적인 노력과 여론에기초되고 있는 미행정부、더나아가 의회를 어떻게하면 더깊숙히 설득해나갈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솔라스위원장의 보고서가 지적했던것처럼 미국의 무드는 한국의 국내상황의 진전에 크게 고무되고있으면서도 더 나은 결속을 위해 한국측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런 미국의 희망은 李외무의 각계 접촉을 통해 솔직하게 전달된것으로 보여지고있다。

이것은 결국 더 광범위하고 질높은 결속의 지속을 위해 미국쪽에 대한 설득못지않게 우리측의 노력도 수반돼야함을 의미한다고 이들은 보고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訪美중인 李範錫외무장관이 2일 국방성에서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교환하고있다。【워싱턴3日UPI=聯合】

體面과 名分…「2시간30분」

—3黨3役 올들어 두번째會同… 그 안팎

4일낮 국회의장실에서 점심까지겹러가며 2시간30분동안 계속된 3黨3役회의는『앞으로대화를통해 국회법개정문제를 계속 협의한다』는 原則論에 합의하는것으로 결말.

지난달25일 국회의장공관에서 열렸던 3黨3役회의가 與野의 엇갈린 주장속에 激論을 벌였던데반해 이날회의는 별다른舌戰없이 오순도순하게 대화를 진행했다。

특히 4월말로 時限이 끝난 국회법심사小委대신 다른기구라도 만들어서 계속대화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與野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때문인지 李東鎬국민당총무의 새로운 小委구성제의를 쉽게 받아들였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절충은 손도못댄채 기구명칭만바꿔 국회법改正심의를 계속하기로한것은 한마디로 與野모두의 체면과 名分用。즉 民正黨으로서는「계속검토」로서 혹시나 정치議案으로 빗어질지모를 政局硬塞을 미리막자는것이고 야당 특히 民韓黨으로서는「4월말처리時限」관철을 다그치는 黨內로부터의 壓力과 반발을 극복하는 突破口를 마련한셈이다。인드「6월末처리」로 되어있는 地自制문제에도 그대로적용되는 것으로서 與野가「先對話窓口유지 後내용절충」을 합의한것으로 볼수있다。

▲趙一濟국민 정책위의장=民正黨은 대화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政治議案을 4년이내는 改正하지 않겠다고 公言하는것은 상호모순되는 것아닌가。또 民韓黨은 지난번 국회법小委解體論을 주장했다가 그후 흐지부지된듯한 인상인데 앞으로 地自制에 대해서도 그런태도를 원용할 생각인가。특히 국회법에서는常委의 예산심의권이 復活되어야하며 만일 이를외면한다면 입법부의 背任행위라는 비난을 면치못할것이다。88올림픽때와 自制없는 首都서울을 외국인에게 보일수 있겠는가。

▲鄭石謨民正정책위의장=이번 국회에서 국회법의 모순점이 발견되긴 했으나 모순점이 조금있다고해서 그때마다 개정한다면 매번 해야할것아닌가。국회법등 모든정치의안은 일정기간 시행해본후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현재 民正黨의 입장은 좀더 시행해본후 改正할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것이다。현행법이 결코 眞善眞美하다고 주장하는것은 아니다。

▲金鉉圭民韓정책심의회의장=국회의 권한은 大입법、예산심의권으로 大別할수있는데 豫決特委에 속한 일부 의원외는 예산심의절차마저도 알길이 없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행사가 불가능하다。물론 民正은 해마다 교대로 예결위에 들어갈수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예산은 年度별로 확정되기때문에 연속성이 없다。의원은각상임위서 소관부처 예산을 다뤄야 전문성을 살리고 深度있는 예산심의가 되리라고 본다。國政감사권을 대신한 국정조사권이 헌법상 명시되고있는데 11代2년여가 지나도록 발동한사실이없다。國調權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어려워 완화해야한다고 본다。地自制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어느선에 갔을때 실시할수있다고 보는지 民正黨은 代案을 밝혀달라。

▲權翊鉉民正사무총장=대화라는것은 서로의 주장을 표현하는것인데 주장할수도、설득당할수도 있는것 아닌가。民正黨이 대표연설이나 세미나에서 改正不可를 얘기했다고 공박하는것은 말이 안된다。他黨이 개정을 주장하고 우리가 不改正방침을 얘기하는것은 견해차인데 시비를 건다는것은 있을수없다。

▲趙의장=다시 강조하지만「不改正」公言과 대화계속이라는 모순점사이에서 언제까지 대화라는 이름밑에 야당이끌려가야하는가。

▲柳漢烈 民韓사무총장=국회법·언론기본법등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개정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權총장=공청회는 누가 나가서 하는것인가。

▲柳총장=의원과 의회제도전문가가 하면 될것이다。

▲李鍾贊民正黨총무=현행 국회법에 대한 長·短點은 이미 알고있지않은가。전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법심사小委의 改善방안을 얘기해 보자。이를테면 小委를 解體하든지 계속하자든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鄭의장=인내를 갖고 대화를 해보자。

▲柳총장=국회법小委는 현재 계속 남아있는 형태이다。

▲李東鎬국민당총무=小委활동의 계속이 어색하면 국회법심사위원회의같은 기구를만들어 인내를 갖고 대화를합시다。결국 地自制실시는 시간문제라고 보는데 언제라도 되는것아닌가。이런것보다는 농민들의 직접생활과 관련이있는 양곡관리법개정에 공동관심을 갖고 연구하자。

▲林鍾基民韓黨총무=국회법小委활동을 중단하자고 요구한것은 더높은 정치적차원에서 절충을 해보자는 것이었다。81명의 民韓黨의원가운데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豫決特委소속의원은 15명에 불과하다。국민의 血稅가 어떻게 쓰이는지 상당수가 모르고 지나는것아닌가。따라서 금년정기국회부터 모두 참여할수있게 국회법을 개정하자。또한 속한 시일내에 民韓黨이 제안한 정치被규제자 解禁건의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최고통치권자에게 건의해 주기 바란다。舊시대의 잔재로 정치적이유로써 구속된 사람들도 석방이 되도록 노력하자。

▲權翊鉉총장=「政治的인 이유」로 구속됐다고 한다는「정치적인」이란 의미가 무엇이냐。反국가事犯을政治犯으로볼수는없다。야당만의주장이至善이라는것이전제가되어서는부당하다。여당도 여당나름의 사정이있다。이를테면 국회법상의 발언자수를 제한하는것도 손해는 여당이 더크다。의석수 비율대로 발언자수를 배분하지 않고 야당측에 상당한 배려를 하고있지 않은가。

▲柳漢烈총장=解禁者에 대한 생업등 뒷바라지를 해주어야한다고 본다。

▲權총장·李民正총무=정부가 失業者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능력에따라 케이스별로 돕는길밖에는 없지않겠느냐。

▲金鉉圭의장=결론을 내자。우선 국회법、地自制등에 대해서는 무한정 시간만 끌수없지않느냐。改正하는 방향으로 時限性을 가지고 얘기토록하고 그다음 言基法문제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측면에서 해결토록 하자。

▲李鍾贊총무=국회법심의小委가 時限을 넘긴 차제에 各黨의 사정을감안하여 국회운영전반을 심의、연구하기위한 국회법小委를 발전적으로 改編해서「국회운영제도연구小委」를 만들기로 하자。

▲金鉉圭의장=그럴경우 국회법개정의 촛점을 흐릴 우려가 있지않느냐。

▲李鍾贊총무=촛점을 흐리자는게 아니고 국회법을중점적으로 다루자는것이다。

▲金의장=時限을 어떻게 할것이냐。

▲權총장·李총무=우리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時限을 못박지말자。

▲趙一濟의장=국민당은 모든 정치의안의 年內처리를 요구한다。

▲金鉉圭의장=小委는 국회의 常設기관이 아니므로 활동시한을 명시해야한다。적어도 올해계획은 올해 마무리해야지 무제한 시간을끌수없다。

▲林총무=小委활동時限을 반드시 못박아야한다。

▲李東鎬총무=국회운영小委의 구성과 운영방법時限문제등을 3黨총무에게 일임하자。

◇나란히 선 3黨3役 오랜숙제인 政治議案에 대한 절충을 벌인 3黨3役들이 회의에앞서 포즈를 취하고있다。㊧로부터 국민당의 申喆均사무총장, 趙一濟정책위의장, 李東鎬총무, 民正黨의 鄭石謨정책위의장, 權翊鉉사무총장, 李鍾贊총무, 民韓黨의 柳漢烈총장, 林鍾基총무, 金鉉圭정책심의회의장。

與野 "對話계속추진해 懸案 처리해야" "國會法·地自制개정 時限정하자"

메아리

時差

어버이는 아들 딸의 나이를 센다。그나이를 내 나이와 겨누어 본다。애들이 홀로 설 즈음、내나이는 몇살이나 되었을까 하고…。

그럴때 애들은 몹시 더디자란는 것만 같다。내 나이 먹는 것은 생각 않고、세월이 빨리 가기를 바라는 심정이 된다。

어버이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요즘 애들은 더디 자란다。몸은 숙성하지만、제구실을 하자면 예전보다 훨씬 많은시간이 걸린다。대학까지 16년의 敎育年限、남자라면 兵役、晩婚경향이 모두 그렇다。

그 때문에 家族週期는 자꾸만 늘어진다。30년대 우리나라의 家族週期는 평균 22·2세 결혼으로 시작되고、23·7세에 맏이 출생、45·9세에 맏이 결혼이란 사이클을 보였다。그러던것이 60년대에 와서는、24·4세에 결혼、26·3세에 맏이 출생、50·7세에 맏이 결혼、59·1세에 막내 결혼이란 사이클이 되었다。

요즘처럼 55세 정년이 일반적이라면、정년은 맏이와 막내 결혼 중간쯤에 온다。出費가 가장 많은 즈음에 경력이 중단된다。

애들의 나잇셈은、그래서 흔히 한가닥 애틋함을 남긴다。그것은 앞날과 지금—10년·20년의 時差에서 오는 불안감이다。생활의 長期設計가 있어야겠는데、그 먼 앞날까지의 전망이 딱이 서지를 않는 것이다。

그러나「어린이 날」을 맞으며、또 내일「성년의 날」을 앞두고 생각하는 家族週期의 時差는 어버이 처지의 것이기 보다、오늘이 즐거운 애들과「새 어른들」의 것이다。10년·20년뒤、지금의 어버이들 처지가 아니라、그들 다음 世代가 살아갈 환경을 그려보는 것이다。

지금의 平均壽命추세로 하면 올의「새 어른들」은 앞으로 좋이 50년은 산다。금년에 취학한 어린이가 성년이 될즈음은 벌써 21세기다。그들은 엄청나게 달라진 세상을 겪게 된다。

그래서 되새길 것이 교육의 뜻이요、교육효과의 時差다。

교육의 구실은 다음 世代를 위한 문화의 전달과 인생의 예비다。傳承된 문화를 바탕삼아、未來社會에의 適應力과 創造力을 키우는 것이다。이같은 교육의 成敗는 결국 10년、20년뒤에야 나타난다。

여기에도 時差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다。지금의 교육이 우리애들을 未來社會—21세기 社會에 適應시킬만한가 하는 의구심이다。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지금 눈앞에 닥친 변혁을「제3의 물결」이라 불렀다。그에 의하면 약1만년전에 일어난 農業革命이「제1의 물결」이요、3백년전에 일어난 産業革命이「제2의 물결」이다。이 뒤를 이을「제3의 물결」은 예전 어느 것보다 급격하고、우리가 살아온 産業化社會와는 판이한 세상을 만들어 낸다。

그의「예언」을 믿거나 말거나、그의 圖式은、지금교육에 投影해 볼만하다。

만일 우리가 변혁없는 사회를 산다면、교육은 傳承된 문화의 충실한 전달로 족하다。어버이와 꼭 닮은 아들·딸을 키우면 그만이다。어버이가 살아 온 세상과 아들·딸이 살아갈 세상이 꼭 같을 테니까。「제1의 물결」뒤의 1만년은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변혁없는 사회란 상상할 수가 없다。그 변혁의 속도는「제2의 물결」속에 빨라졌고、「제3의 물결」을 타고 加速된다。時差에 따른 변혁의 幅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교육의 구실 또한 달라져야 할계제다。

그렇다면、오늘의 우리 교육은 어떨까。교육의 需要는「제3의 물결」쪽에 있는데、供給은「제2의 물결」이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교육을 상징하는것은「○×競爭」이다。그것은「오늘의 競爭」을 이겨야한다는 어버이 나름의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그러나 그런것이 이익고 닥칠「내일의 競爭」을 이기는길이 못됨은 분명하다。더구나「내일」에는「競爭」의 의미、「이긴다」는 뜻마저 달라져 있을텐데…。

말이 거창하다 싶으면、이런 상상을 해 보자。

오늘 잔치를 받는 어린이도 언젠가는 어버이가된다。21세기 중반쯤이다。그무렵 그들의 아들·딸은 宇宙船속에서 成年式을 즐길지도 모른다。그리고 宇宙植民地로 일자리를얻어 가지말란 법은 없겠다。

그 때가서、그 때의 어버이들은、자기네가 前世紀 80년대에 받은 교육을 어떻게 기억할까。즐거웠다고할까。변혁속의 삶을 예비하기에 족했다고할까。

이런 물음이 떠오른 탓으로、즐거운날 아침의 空想이、마냥 즐겁지만은 않다。교육목표·교육효과의 時差란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金昌悅【編輯委員】

記者의 눈

외로운 小波묘소

죽은 후의 무덤의 크기가 그사람에게 무슨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는 말할수 없으리라。그러나 서울 忘憂里에 있는 小波 方定煥의무덤에 가보면「해도 너무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어린이날」을 우리나라처럼 성대히 지내는 나라가 모두 축제분위기에 젖어드는 나라는 없다。미국에는 2월중에「할로윈데이」라고해서 개구장이들의 장난을 하루쯤은 눈감아주고있으나「어린이날」을표방한 공휴일은 아니고、프랑스에는「어린이날」은 물론 이와 유사한 기념일도 없다。

자유중국은 4월4일을「兒童節」이라고해서 국민학생들은 이날 학교에 가지않고 집에서 놀지만 아버지들은 역시 일터에 나가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어린이날」처럼 깨가 쏟아지지 못한다。日本은 우리나라와 같이 5월5일을「子供의日」(고도모노히)로 정하고、공휴일로 되어있지만 우리나라「어린이날」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고「어린이날」의 사회적 역사적배경도 우리나라처럼 절실한것이 되지못하고있다。우리나라의「어린이날」은「어린이를 때리지 말라。이는 한울님을 때리는것과 같다」(海月 崔時亨의 敎說)는 東學의 가르침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人乃天」으로써 현실을 혁파하려했던 東學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가장 치열한휴머니즘으로써 이땅의 어린것들의 참상을 가슴아파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보호사업、어린이문고간행、어린이날제정등 사업이 주로 天道敎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천도교인 方定煥(그는 東學의 3세敎祖 孫秉熙의 3女 孫溶嬅여사와 결혼했다)은 이처럼 새시대의 앞날을 기약하는 어린이사업의 최첨단에서 한평생을 불태웠던 선구자였다。

33세에 요절한 그의 유해는 홍제동에서 화장된후 5년동안 납골당에 버려져있었던 것을 1936년 뜻있는 天道敎人들이 수습하여 忘憂里의 유택으로 모시었다。25평의 묘역에는 봉분조차 없고 1m정도의 쑥돌하나가 오뚝서서 그비명에「어린이의 벗 소파방정환지묘—童心如仙」이라고、옛 선구자의 묘소임을 알려주고있다。

이번 어린이날을 맞아 뜻있는 인사들이 이 묘역을 50평정도로 확장하고 축대도 쌓고、기념비도 세우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하겠다。故人이야 이 塵世의 부귀공명을 초개로 알고、오로지 어린이만을 사랑했던 분이므로 묘지의 평수 따위에야 아랑곳하지 않을 어른이지만、그의 묘가 그가 갖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에 부합되는 외양을 갖추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를 영원히 흠모할 이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이다。

【金蘇문화부기자】

이대환 不動産

★드라이브 인
▲도넛숍 : 주매상 $8,500, 렌트 $2,900, 아스킹 $320,000
▲도넛숍 : 주매상 $9,500, 렌트 $3,500, 아스킹 $319,000
★Mall안에 있는 Fast Food
주매상 $10,000, 아스킹 $320,000
★아담한 Take Out 식당(6일)
주매상 $6,500 렌트 $500 아스킹 $160,000
★Mall안에 있는 Gift숍(크리스탈전문)
년수입 $500,000, 아스킹 $14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1,000, 리스 5+5년가능, 아스킹 $13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5,000, 리스 6+10 아스킹 $220,000
▲Plaza, Income $32만 Net, Net, Asking $3백만, D.P, $50만, (대지 5,3 에이커)
▲Plaza(시외), Income $28만9천 Net, Net, Asking $2백50만, D.P, $40만, 투자액에 대한 14% 수입 보장.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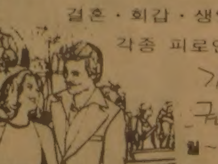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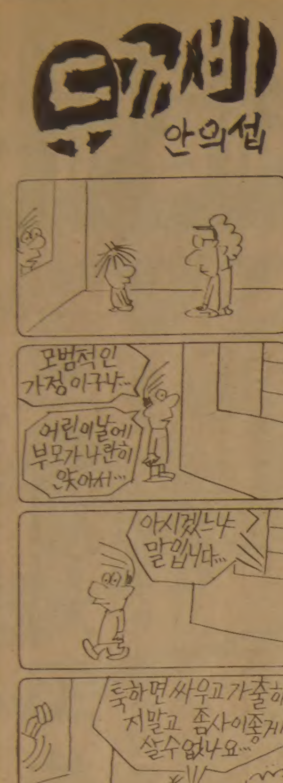
⊙일인당 $32.95부터
(세금및 팁 포함) 웨딩스페샬
—50명 이상을 위주로—
Fruit Punch, full dinner, 포도주 2잔, 술, 뱅쿠엘 룸, 하루밤 숙박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nue East, Don Mills
(416) 449-4111 Catering 매니저 (Alison MacKinnon)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商高에 「컴퓨터學科」신설

新入生 모집도 4개科別로

내년부터

문교부、産業社會대처 교육과정 개편

내년부터 상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전면개편돼 학과별로 나뉘어 신입생을 모집하고 컴퓨터 전문학과가 처음으로 생긴다。

문교부는 4일 상업교육의 전문성을높이고 점차세분화 되고있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편、내년도부터 실업과、회계과、무역과、정보처리과등 4개학과로 나누어 교과목을 운영하는한편 신입생도 학과별로 모집키로했다。

문교부는 또지금까지 교과과정이수에 필요한부기 한글타자등 14개과목을 통폐합、10개과목으로 축소하며 「전자계산기」과목을 신설했다。이와함께「속기」과목을폐지하고경영관리는 경영대요로、판매관리는마키팅으로각각명칭을바꾸기로했는데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로결국 23개전문 과목에 「기타과목」을 포함、24개과목으로 편성운영된다。

문교부관계자는 이번사회가 점차 기술집약적인산업으로 대체돼감에따라 직종이 계속 전문세분화되고 있어 학생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과특성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하고 각기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특히 컴퓨터시대를맞아 이에 알맞는 교육을 시키기위해서는 따로 학과를 독립해야할 필요가있어 정보처리과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의개편에서 특이한것은 각 과목별이수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이수단위 합계만 규정해놓음으로써학교의특성에 따라 마음대로 이수단위조정을 가능하도록 했는데이같은 융통성부여는 처음있는 일이다。

그러나 과목당 이수단위는 4~10단위이내로 범위를 한정 했는데 고교전과정의 이수단위 합계는82~1백22로 이중 필수가 40~64、선택을 42~82로 했다。

또 선택과목에 「기타」과목을두어 지역 사회의 실정과 각학과의 분화된 특성에 따라 농업、공업、해양수산등 다른 실업계열의 전문과목중 어느과목이라도 선택할수있도록 한것도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특성이랄수있는데 「기타」과목의 설정과 지도 내용등을 학교장이 사전에 문교부의 승인은 받도록했다。

새로 조정된 학과목은 내용별로보면 현재부기 I II등으로 세분된 부기를상업부기 부기회계 등 2개과목으로 통합하며、한글 영문으로 나뉜 타자도 1개과목 으로、이밖에도 회계 경영통계 각종의 프로그래밍 과목을 경영통계 프로그래밍、자료 처리 문서사무등으로통폐합한다。

이들 학과목중 상업개요·경영개요·상업부기·전자계산일반등 4개과목을 모든학과의 공통으로、3개학과목은 과별필수등 7개과목을 필수로 하는한편 과별특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두기로 했다。

修學여행 집단食中毒

雪嶽山 비선여관

金泉고교56명 病院신세

【束草】雪嶽山에 수학여행온 경북金泉고교 2학년 학생 4백50명중 56명이 4일아침 투숙했던 설악산비선여관 (주인임송학) 에서 아침식사를하고 관광길에 나섰다가 집단으로 식중독을 일으켜 束草새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이들학생은 4일 상오6시30분부터 아침식사를 하고 비선대코스로 관광길에 나섰다가 상오8시30분께 주효진군 (18) 등 56명이 잇달아 구토와 복통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학생들은 이날 아침식사로 밥과 국、산채、깍두기、어묵등을 먹었는데 새한병원 정영래원장은 어묵이식중독을 일으키게한것같다고 말했다。【鈴】

修學여행인솔 校長 불량배가 폭행

【釜山】수학여행단을 인솔중인 여자중학교 교장이 학생들이보는앞에서 술취한 불량배에게 폭행을당했다。

4일 새벽4시30분께 부산시海雲臺區 中1洞海雲臺해수욕장 옆길에서 술취한 朴경규씨(23·폭력전과2범·東萊區蓮山洞1873)가부산에 수학여행왔다가 해뜨는모습을 구경하러모여있던 大田 호수돈여중생 5백50여명의 대열에 끼어들었는데 인솔자인 이학교 교장 崔원우씨(53)가 「나가라」고 하자 학생들이보는 앞에서 崔교장을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전치2주의 전신타박상을입혔다。

이같은 사고로 호수돈여중 수학 여행단은 이날 부산의 太宗寺를 비롯、凡魚寺와 梁山通度寺를 구경키로된 여행일정에 큰차질을 빚었다。

외간남자와 동침 家出아내를 살해

【大邱】대구南部 경찰서는 4일 가출한아내가 다른남자와 동침을했다는 이유로 아내를때려 숨지게한 李孝洙씨 (21·大邱市南區 진천동410)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李씨는 3일하오5시께 대구시南區대곡동 뒷산에서 가출했던 아내 全永祚씨 (20)의 행적을 추궁하던중 全씨가 지난4월30일밤 시내北區七星洞 七星시장부근 모여관에서 어떤남자와 동침을 했다고 말하자 격분、양손으로 목을졸라 실신시킨뒤 돌로 全씨의 머리를때려숨지게한 혐의이다。【鈴】

쥐약먹고 어린3男妹 숨져

【金海】쥐약을 음료수로 잘못알고 마신 어린이3자매가 병원에서 가료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일 하오 2시께 金海郡進永邑進永里370 金유창씨(38·노동)집에서 金씨의 장녀 혜영양(11)과 장남 태운군(8) 차남 태섭군(6)등 3명이 부엌 찬장위에 놓아둔 20cc들이 쥐약 1병을 설탕에 타먹고 신음중인것을 밭에 일하러나갔다 돌아온 어머니 배정애씨(30)가 발견, 馬山고려병원으로 옮겼으나 2일밤 10시께 태운·태섭군이、숨지고 혜영양은 3일 새벽 1시20분께 숨졌다。

再活院어린이에 꿈을심는 할아버지 樂團

不遇兒들 방문 흥겨운 童謠잔치

12人組…79년 長壽무대가 인연

3百여 어린이들 "가장 큰 선물"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정경이었다。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들이 반주하는 동요가락에맞추어 천사의 音을 노래하는 어린이들。요즘같은 핵가족의 세태에 이렇게 흐뭇하고 인정어린 광경이 또있을까。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하오4시 서울 冠岳區 新天洞72의3 삼육아동재활원 (원장 閔泳在·64) 강당을 빽빽이 메운 재활원의 고아와 재활원에 입원중인 지체부자유자등 3백여어린이들은 뜻밖에 재활원을찾은 「할아버지악단」의 노래선물에 감격、반주에 맞추어 어린이날 노래를 힘차게 합창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악단이 이날 삼육아동재활원을 찾게된것은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와 함께할수없는 불우한어린이들에게、또 다른어린이들처럼 마음껏 뛰놀수없는 지체부자유 어린이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안겨주자는뜻에서였다。그것은 「밝은 내일을위한 희망」을 심어주는것이었다。

할아버지악단은 12인조로 거의 古稀의 세대。지난79년4월 당시 東洋라디오의 노인프로「장수무대」에 출연했던 노인악사들을 洪淳昶프로듀서(현KBS TV 장수만세PD)가 규합、「할아버지악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했다。

지휘겸 악장(樂長)은 색서폰을 부는 千年壽할아버지(67)。피아노、기타에도 능한 만능악사로 30년대 조선악극단시절에는 꽤나 이름을 날렸었다。할아버지 악단의 총무를맡고 있는 李炳尙할아버지(69)는 14년전 철도청33인조악대를 창설한분으로 앨토색서폰과 클라리네트주자。

李炳尙할아버지는『할아버지악단은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城東區馬場洞 적십자 서울지사지하실에서 연습에 열중하고있다』고 밝히고 레퍼터리는 가요·민요·동요·팝송등 1백50여곡에 이른다고。

서울市가 마련한 푸짐한 선물도 아울러 들고찾아간 이날의 어린이들을위한 잔치는 10여곡。

동요에 옛가수 白蘭兒씨가 찬조출연했다。白蘭兒씨는 이날 할아버지악단이 어린이들을 위문한다는 소식을듣고 자청해서 출연하겠다고 제의、아리랑과함께 그의히트곡을 몇곡불러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박수를받았다。

『노래 잔치는 어린이들을 위한것이었지만 신나는 쪽은 어린이들보다 오히려할아버지 쪽인듯했다。

가장 연장자로서 바리톤 색서폰주자인 池芳烈할아버지(78)는『오늘처럼신나는 날이없었다』고 말하고 어린이들과함께 어울리다보니 몸도 마음도 한결 젊어진것같다고 밝혔다。

이날따라 힘차게 색서폰을 연주한 池할아버지는 한때 영화배우로서 활약했고 지금도 TV단막극의 노역과 의사역의 단골。얼마전부터 귀가 어두워 보청기를 끼고 열심히 음을 조절하고있었다。

할아버지악단의 반주에 따라 손뼉을치면서 열심히 노래한 한어린이는『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들이 너무나 힘든것같아 오히려 우리들이 위로해야겠다』면서 손수건을꺼내 할아버지 이마의땀을 닦아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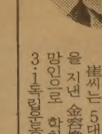
또 지체부자유자로서 재활원에 다니는 姜恩珠양(16·중3)은『할아버지악단의 노래선물은 어느다른선물보다 보람된것같다』고 흐뭇해하고 육친의정이 그리운고아들에게는 더없는 큰힘이된것같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악단은 창단후 4년간 지금까지 수10여회에걸친 위문공연수와 두차례에 걸쳐 일본연주여행(81년5월、82년5월)도 다녀왔으나 한결같이 어린이들과 함께한 이날의 공연이 가장 뜻깊었다고 입을모았다。【薛熙澤기자】

◇할아버지악단이 동요를 연주하자 어린이들은 손뼉을 치며 즐거워 했다。이날 三育재활원에서는 할아버지들도 어린이들의 뜨거운 호응에 모처럼 가슴이열렸다。

훌륭한 어머니에 崔賢淑씨

本社 7일 시상식



한국일보사제정 금년도 제20회 훌륭한어머니로 崔賢淑씨(79·사진·서울 江南區 盤浦本洞 盤浦아파트 107동 506호)가 4일 선정됐다。

崔씨는 5대 국회의원을 지낸 金容燠씨의 미망인으로 한참시절에는 3·1독립운동에 참가했고、그 후에도 문맹퇴치와 농촌 계몽에 젊음을 불태웠다。

가정에서는 7남매를 훌륭히 키웠고、독실한원불교 신자로 지금도 사회봉사에 여생을 바치고 있다。시상식은 7일 상오11시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열린다。

全國 흐린후 한때비

오늘 61회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은 전국적으로 흐려져 하오 늦게부터는 비가 내릴것 같다。

중앙기상대는 4일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中部지방은 5일상오 흐린날씨를 보이다가 하오늦게나 밤부터 비가 오겠고 영·호남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한두차례 비가오겠다고 예보했다。

한편 낮최고기온은 서울과 中部지방이 22도내외、영호남지방은 20~25도로 예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다。

兒童복지에 有功 60명을 표창

보사부는 4일 제61회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복지증진에 공이큰 柳乙熙씨(79·여·충남儒城천양원원장)등 4명에게 국민훈장을、구세군 서울후생학원사감 金俊燮씨(53) 등 2명에게 국민포장을 각각수여하는등 모두60명을 표창했다。

보사부는 또 다른어린이들의 모범이돼온 한선옥양(12·서울孝悌국교6년)등 24명에게 장관표창을했다。

富川형제 被殺 아버지에 혐의

【富川=金宗來·朴榮基기자】속보=富川市深谷1洞聖柱山기슭 高尙炫군(8)형제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4일 숨진尙炫군형제의 아버지高武煒씨(37·무직·주거부정)가 지난달30일과 지난2일 尙炫군과 동생朱炫군을 그동안맡겨두었던 친척들집에서 데려간 사실을밝혀내고 高씨를범인으로지목、수사중이다。

친척들에 의하면 高씨는 지난달 30일하오2시께 작은누나 高모씨(43·서울恩平區鷹岩2洞) 집에들러 朱炫군을、지난2일하오4시께는 큰누나高모씨(54·富川市深谷洞) 집에들러尙炫군을 각각데려갔다는것。

경찰은▲高씨가 尙炫군형제를 데리러 왔을때 입었던 옷이 숨진尙炫군형제의 시체에 덮여있고▲지난2일 하오6시께 聖柱山기슭15m아래의 구멍가게에 어린아들 2명을 데리고와 소주1병과 빵7백원어치를사서 聖柱山쪽으로 간40대남자의 옷차림이 高씨와 일치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高씨가 아내의 가출과 생활고로인해 형제를 기를자신이없어 살해하고 달아난것으로 보고있다。

瑞山 大山面·낙동강하구언 주변

投機조사반 투입

국세청은 4일 최근 투기과열현상이 일고있는 충남瑞山郡大山面일대와 낙동강하구언주변지역에 투기조사반을 투입、땅값변동및 거래상황에대한 정밀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투기조사반의 현지 조사결과 투기로판단되는 지역은 이달중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양도세등세금을중과키로했다。

충남瑞山郡大山面일대의 투기바람 (한국일보4일자 11면보도)은 現代건설의 대규모공업단지 조성계획과함께 최근 크게번지고 있다。

現代건설은 충남瑞山郡大山面 加露林灣 일대 3백37만6천평의 바다를 메워 고선(古船)해체공장등 대규모공장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3월19일 관할 충남도에 공유해면 매립허가 신청을제출해놓고있다。

그러나 공단조성을 위한 이같은 간척사업은 최소한 5~10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도 사전에 이를알아낸 부동산업자들이 앞장서 당장 땅값이 오른는것처럼 부채질하면서 한달남짓사이 최고10배까지 값이 뛰고있다는것이다。

또 낙동강하구언주변의 釜山、泗山、昌原、鎭海、金海郡일부지역의 땅값도 부동산업자의 농간에따라 특히 지난달23일 공사착공을 고비로 최근20여일사이에 2~3배씩이나 값이뛰고있다。

판소리 무형문화재 金如蘭할머니 別世

판소리 중요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金如蘭씨가 3일 하오2시 서울銅雀區本洞457의15 자택에서 별세했다。향년77세。金씨는 丁貞烈과 「춘향가」를 완창할수있는 유일한 생존자로 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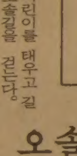
57년~64년에는 수도국악예술고등학교를 세워 후진 양성에도 힘썼다。장례는 5일 하오1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판소리보존협회장으로치러진다。연락처566 9457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홍신의「人間市場」
●한국 學閥·人脈을 캔다

어린이대공원 교련사 金鳳吉씨

·조랑말 馬夫

"童心을 싣고 오솔길 걷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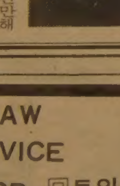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고、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오』이는 평생을 어린이운동에 바친 小波 方定煥선생이 만든 「어린이날의 약속」의 한귀절이다。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갖가지 어린이예찬론이 나오지만 그 모든것이 이 한귀절속에 함축돼있다。

어린이대공원 교련사 金鳳吉씨(41·사진)는 어린이를 누구보다도 더 높게、더 즐겁게 해주는 보람속에 하루하루를 산다。일년열두달、그것도 남들처럼 떠들지도않고 말없이 실천한다。

그는 아침9시부터 하오5시까지 조랑말에 어린이를 태우고 길이 2백m의 오솔길을 걷는다。

『어깨를 펴고、말안장을 꽉잡은뒤 앞을 멀리 바라보란』는등 온갖 신경을 써가며 어린이를 모신다。조랑말은 휴지한장만 날아와도 놀라 앞발을 들기때문에 여간 조심스러운것이 아니지만、그래도 즐겁다。

평일엔 30~40명、휴일엔 1백명정도의 어린이손님을 태우고돈다。2백m의 오솔길이지만 1백바퀴만 돌아도 20km를 걷는셈이다。이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마부」라는 인식때문에 딴사람들은 1년도못돼 그만두지만 金씨는 3년째 다람쥐 쳇바퀴돌듯 2백m코스를 돌고있다。



『저는 미남은 아니지만 제얼굴은 말을 타고간 수많은 어린이들의 사진첩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모두가 기념사진을 찍어가니까요』

그렇다고 항상 즐거운것만은아니라는 고백。새치기하거나 자기자식만 아는 엄마등 미운 어른들을보면 티없는 동심에 상처를 주지않을까 겁이 난단다。

金씨는 81년봄에 태웠던 한소년을 잊지못한다。양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고왔던 그 소년은 金씨의 도움으로 말을 탄순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자신만만해하던 그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단다。

어린이날을 맞으면서 그는두가지 아쉬움을 간직하고 있다。가장 귀여운 나이인 3~4세 어린이를 위험하다는 이유로 말을태우지 못하고、어린이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 말이나 돌보며 쉬어야 한다는 점이다。

얼룩이 폭탄이 순진이등 17마리의 말중 어느놈이 가장 좋으냐고 물으니『말도 어린이처럼 편애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한다。【徐華淑 기자】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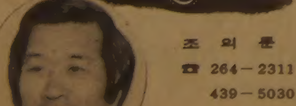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UP을 컴퓨터—씨스템(SCOPE)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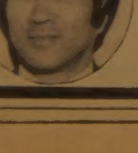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 W
(크리스티×블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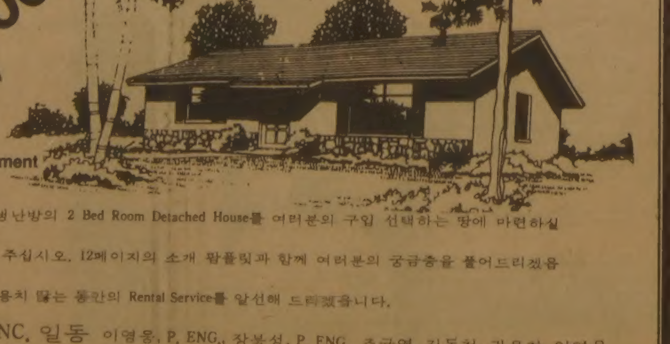
조의윤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Springwood Homes inc.

당신도 후로리다 휴양지에 별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래 소개된 COTTON—WOOD MODEL HOUSE는 Golf Courses, 학교, 쇼핑센터, 교회, 공원에 인접하고 WALT DISNEY WORLD까지 1시간거리, 그리고 해변에서 10분거리의 멕시코만에 있는 Clear Water 근처의 SPRING HILL COMMUNITY에 건축되고 있는 10가지 Model의 별장중 하나입니다.

The Cottonwood
*$21,000 (U.S. funds)
Terms min. 20% down payment



이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의 2 Bed Room Detached House를 여러분의 구입 선택하는 땅에 마련하실 수 있읍니다.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12페이지의 소개 팜플릿과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읍니다.

현지담사와 년중 사용치 않는 동안의 Rental Service를 알선해 드리겠읍니다.

SANG ROCK INC. 일동 이영웅, P. ENG., 장복성, P. ENG., 조규열, 김동천, 권용철, 안영운
TEL : 661-3124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술면허를 취득했읍니다
□맥주 □청종·와인등
〈지역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537-0432
내고향 통닭집
658½ BLOOR ST. W

승리女神 해태품에

李相潤 혼신의 力投 9회 滿壘위기 잘넘겨

三美제치고 先頭나서

三星은 롯데에 또져 꼴찌固守

1-0

2시간45분간의 불꽃튀는 선두다툼에서 해태·타이거즈가 강속구투수 李相潤에 힘입어 三美슈퍼스타즈를 제치고 단독선두로 올라섰다. 홈경기에 강한 해태는 4일 원정경기에 강세를 보여온 선두주자 三美를 光州로 맞아들여 5회말 1死후 8번金茂宗의 2루타, 9번 林楨勉의 적시결승타로 얻은 1점의 리드를 李相潤의호투로 지켜 1-0으로 승리, 홈에서 금년시즌에만 6연승을 올렸다. 해태는 8승1무 5패, 三美는 11승7패를 기록, 해태가 승률 4리의 아슬아슬한 차로 선두자리를 빼앗았다.

9회초 無死만루. 0-1로 뒤진 三美는 역투하던 李相潤으로부터 2안타와 1포볼을 빼앗아 마지막 역전찬스를 마련했다. 타석에는 1일 春川경기서 연장12회에 결승2점홈런을 날렸던 9번 李英求가 등장. 1점의 리드를 지키기 위해 초긴장상태로 전진수비를 펴고있던 해태수비진에 李英求는 어이없게도 李相潤의 제6구, 강속구에 밀려 평범한 2루땅볼을 때렸다.

해태는 홈과 1루에서 더블·플레이를 성공시켜 2死 2·3루로 三美주자를 몰아넣고 李相潤은 마지막 1번타자 梁承琥을 내야땅볼로 잡아 금년시즌 첫 완봉승, 두번째 완투승을 올렸다. 4연승을 올린 이날 李相潤의 투수 성적은 9회 10안타, 7삼진, 4포볼·6회, 자책14점, 탈삼진 38개로 4승2패를 기록했다.

전기시즌 우승을 노리며 호적수 해태와의 대전에 에이스 張明夫를 투입했던 三美는 안타수 10-7의 우세를 3차례의 병살타로 놓치는불운을겪었다. 6회초 無死1루, 7회초 2死만루, 9회초 無死만루 찬스를 병살로 잃고 2회초1死1·2루, 3회초1死1·3루, 5회초 1死1·2루의 득점찬스를 모두 후속타 불발로 놓쳤다. 張明夫는 이날 4연승만에 첫패배를 당해 6승3패 1세이브를 기록하고있다.

최하위권 탈피를위한 롯데—三星의 大邱경기서는 롯데가 초반집중타로 선제리드를잡고 金文熙·盧相守의 계투로 끈질긴 三星추격을 7—6으로 뿌리쳐 5위를 고수했다. 롯데는 전날 對OB전서 6、7호 홈런을 터뜨린장타자 金用熙가 5타수무안타로 침묵을 지켰으나 4번 金容哲이 5호홈런을비롯 4타수3안타3타점, 3번 柳斗烈이 3타수2안타3타점으로 三星의 宋鎭浩와 權永浩를 통타, 롯데 승리에 공헌했다.

◇중간순위 (4일현재)

	팀	승	무	패
①	해태	8	1	5
②	삼미	11	0	7
③	OB	10	0	9
④	MBC	10	0	10
⑤	롯데	8	0	11
⑥	삼성	6	1	11

◇4일전적

◆광주

삼미	000	000	000	—0
해태	000	010	00×	—1

◆대구

롯데	100	200	301	—7
삼성	000	001	302	—6

▲홈런=金容哲(4회1점)

대통령盃배구

一信女商 무려 82連勝

慶福에 기적의逆轉 우승

白山高도 慶北師大附高에 예선패배 설욕

白山高와 一信女商이 제17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배구대회서 우승, 白山은 2連覇했으며 一信은 4년간 정상을 지켰다. 4일 최종일 남고부결승서 白山高는 慶北師大附高와 재대결, 예선전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여고부서는 一信女商이 慶福女商에 한세트만 내주고 승리, 지난81년3월 춘계중고연맹전 우승이후 전국규모대회서 82연승을 기록했다.

제1、2세트를 내준 慶福女商은 제3세트서 11—14로 뒤져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慶福에 한세트를선사한것은 2년생 李貞和. 李貞和는 왼쪽에서 강연공과 터치·아웃 타법으로 4득점, 뉴스코어에 한 세트를 따내는데 결정적인역할을 했다.

국내 최장신 세터林惠淑은 실업팀들의 눈길을끌만한 기량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한 템포빨랐다 늦추었다하는 절묘한 토스로 一信 공격수들을 이끌었으며, 토스하기 곤난한 볼은 2단 공격을 폈다.

마지막 4세트 2—8、4—14로 크게뒤지던 慶福은 뒤늦게 추격을 전개했다. 2년생 李京媛이 블로킹으로 1득점하고 상대공격 실책에 편승, 14—6。이어 李京媛이 一信 중앙속공수 沈惠卿의 중앙 페인트공격을 블로킹으로차단하고 申福子의 오픈공격이 득점에 연결, 14—8까지 따라갔다. 그러나 一信 林惠淑이 金順淑의 중앙 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 맥을끊었다.

◇최종일결승전

▲여고부

일신여상 3 (15—8, 14—16, 15—9, 15—8) 1 경북여상

▲남고부

배산고교 3 (15—8, 17—15, 15—8) 경북사대부

◇또 이겼다 一信女商선수들이 우승이 확정된 순간 양손을 쳐들어 기쁨을 나누고 있다.

宋東煜에 기대

데盃테니스 東部준결승전 내일 日서 開幕

83년 데이비스컵 테니스 동부지역 준결승 對日戰이 宋東煜—후꾸이의 첫단식 대결로 6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서개막된다.

나고야 그린테니스 코트에서 열리는 이번대회에서 한국은 신예 宋東煜(울산공대)과 李우룡(현대)을 단식주전으로 내세우고 필리핀과의 2회전서 주전으로 뛰었던 金奉大(대우)와 金春浩(현대)를 복식에 기용하는 모험을 걸었다.

양국은 4일상오 아이찌縣 知事室에서 대진추첨을 실시, 첫날 宋東煜—후꾸이 경기에이어 李우룡—시라또의 제2단식이 거행되며, 7일에는 金奉大·金春浩조—니시오·요네자와조의 복식, 8일에는 李우룡—후꾸이, 宋東煜—시라또의 3、4단식이 펼쳐진다.

한국의 이러한 선수기용은 데이비스컵 최종선발전에서 전승을올린 왼손잡이 宋東煜의 상승세에 기대를 걸고 승부의고비가 될수있는 복식에 큰비중을둔 때문. 한국대표팀의 金文一감독은 일본최강인 후꾸이와의 단식2게임서 패배하더라도 나머지 단식 2게임과 복식을 빼앗겠다는 전략을세워왔다.

세계프로랭킹1백50위까지 올랐던 후꾸이는 월말 현재 컴퓨터랭킹 2백42위를 마크하고 있는데, 스피드가 뛰어나고 타법이좋은 전형적 베이스라인 플레이어로 金奉大와 金春浩가 이겨본적이없는 강호이다.

◇동부지역 준결승대진

6일 11시	宋東煜—후꾸이
	李우룡—시라또
7일 13시	金奉大—니시오
	金春浩—요네자와
8일 11시	李우룡—후꾸이
	宋東煜—시라또

美 여자排球대표팀 6월 招請친선大會

배구협회는 11월 日本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및 LA올림픽 예선전에대비, 美國여자대표팀을 6월12일부터 17일까지 초청, 韓·美친선배구대회를 갖기로 했다.

협회는 美國대표를 맞아 국가대표와 모두 3차례의 경기를 치르기로했다.

蹴球 슈퍼리그 화려한 出帆

◇상반기 경기일정(20게임)

월 일	시 간	장 소	대 진
5·7	15:30	서 울	유공：할렐루야
〃	17:15	〃	포철：대우
5·8	14:00	〃	할렐루야：국민은
〃	15:45	〃	유공：포철
5·14	15:00	부 산	유공：할렐루야
〃	16:45	〃	대우：국민은
5·15	15:00	〃	유공：국민은
〃	16:45	〃	대우：포철
5·21	15:00	대 구	대우：국민은
〃	16:45	〃	포철：할렐루야
5·22	15:00	〃	유공：대우
〃	16:45	〃	포철：국민은
6·25	15:00	전 주	유공：대우
〃	16:45	〃	국민은：할렐루야
6·26	15:00	〃	할렐루야：대우
〃	16:45	〃	국민은：포철
7·2	15:00	강 원	유공：포철
〃	16:45	〃	할렐루야：대우
7·3	15:00	〃	유공：국민은
〃	16:45	〃	할렐루야：포철

APEX 話題

한국축구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게될 슈퍼리그가 7일하오3시30분 서울운동장에서 할렐루야—油公의 첫대결로막을올린다.

슈퍼리그는 할렐루야 油公 浦項製鐵 國民銀行 大宇등3개실업팀등5개팀이홈앤드어웨이 방법으로 주말마다 연간 40게임을 벌이게된다.

축구협회는 슈퍼리그 출범을기념하기위해 7일 화려한 그라운드 쇼를펼친다.

각구단의 마스코트와 애드벌룬이 높이 떠위진가운데 헬리콥터의 축하비행이 있으며 東京川여상 5백여명이 연출하는 5색의축제、永登浦공고생 6백명과 KBS무용단·가수·코미디언등의 개막축하쇼、북청사자놀이、공용차는 민속마당놀이、연합신체조、어린이축구묘기등이 1백분동안 그라운드를 수놓는다.

7일開幕戰…年40게임 격돌

老人·國校生무료입장…푸짐한 선물준비

승용차2대·피아노등 1만7천여점競品

江原·忠南北을 연고지로하는 할렐루야의 마스코트는 독수리。닉네임은 이글스로 정했다. 서울 仁川 京畿가 연고지인 油公은코끼리를 마스코트로 정했고 慶北·大邱의 浦鐵은 마스코트가 돌고래、全南北의 國民銀行은 까치、釜山·慶南의 大宇는 왕관을 마스코트로했다.

각팀은 국민학교와 결연을 맺었는데 할렐루야는청파국민학교、油公은 면목국민학교、浦鐵은 성내국민학교、國民銀行은 전농국민학교、大宇는 미동국민학교와 각각 결연됐다.

또 축구협회와 각구단은 슈퍼리그를 활성화시키기위해 관중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마련했다. 개회식과 시즌종료때 추첨으로 지급하는 맵시승용차 2대를비롯,서진피아노3대、기타30대、VTR5대、냉장고 10대、세탁기20대、오토바이 4대등 모두15종 1만7천34점의 경품이 관중들에게 돌아간다. 할렐루야는 어린이T셔츠 1만장과 배지 넥타이핀 각3천개를 마련했고 油公은 병따개2만개、유공선수들의 사인한 축구볼 1백개를 관중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浦鐵은 태양모자 1만5천개 T셔츠1만장을、國民銀行은 저금통10만개 팬북1만권 소책자5만권、大宇는 요술책받침 2만개와 축구공 연필깎기3만개를 기념품으로 준비했다. 이밖에 축구협회는 5개구단 마스코트가 인쇄된 책받침 5만장을 어린이팬들에게 선물한다.

국민학생과 경로우대증 소지자는 경기장에 무료입장할수있다.

팀이름	연 고 지	마스코트	별 명
할렐루야	강원 충남북	독 수 리	이 글 스
유 공	서울 경기 인천	코 끼 리	엘레판츠
포항제철	경북 대구	돌 고 래	돌 핀 스
국민은행	전남 전북	까 치	까 치
대 우	부산 경남	왕 관	로 열 즈

HAPPY TIME

南北 대결 불가피 내일 부터 個人戰

東京 세계卓球

【東京=李廷元특파원】제37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는 5일부터 각부문별로개인전에 돌입하게된다. 개인전은 6일부터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며 남녀복식 결승전이 8일, 남녀단식및 혼합복식결승전은 9일 거행된다.

이번대회개인전단식에출전할 각국선수는 남자 2백83명·여자 1백79명.

한국은 朴利熙 金浣 金琦澤 尹吉重 安宰亨이 남자단식에、金浣 金琦澤 李昌勳 安宰亨이 남자복식에 출전하고 여자단식엔 尹璟美 安海淑 梁英子 李美雨 申得花、복식엔 尹璟美 梁英子、李美雨 申得花조가 나설예정이다。혼합복식엔 金浣 安海淑、金琦澤 梁英子、尹吉重 尹璟美、安宰亨 李美雨、李昌勳 申得花조가 출전한다.

개인전 여러경기에서 남북대결이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中共서 席卷 東京탁구 男女단체

【東京=李廷元특파원】中共은 제37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녀단체결승전에서 모두 우승, 세계탁구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했다.

中共남자대표팀은 3일 유럽최강 스웨덴을 5—1로 격파, 2連覇했으며 지난61년대회이래 통산 8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中共여자팀도 홈팀 日本을 3—0으로 완파、75년 캘커타대회이후 5連覇를 이룩했으며 통산 6번째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張吉山 <1733>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93)

전성달이 말하였다.

『해서 수만신이시니 그러지요. 우리 미륵도의 자당이 되시는 셈입니다』

여환은 그저 무덤덤한듯이 뒷전에 서있었다. 방에 들어가 앉자 먼저 계화가 두손을 모으고 다시 일어나며 원향에게 말하였다.

『용녀부인께 문안 올립니다. 절 받으시지요』

계화는 깍뜻하게 존대말을 쓰면서 살포시 큰 절을 올렸으며 원향이쪽에서도 하는수 없이 맞절을 올렸다. 계화가 단정히 앉아서 말하였다.

『전에 돌아가신 큰 만신님께서도 제게 당부하셨읍니다. 이제는 전에 제가 알던 원향이가 아니옵고, 구월산 이서의 수만신이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무도(巫道)의 법도입니다. 제게 일을 이르시고 영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이도 계화와 다른이들의 엄숙함에 좌석을 흐트릴 수가 없어서 단정하게 앉았을 뿐이었다. 여환은 딴전을 하며 묵묵히 수방관하였는데, 다시 황회와 전성달이 일어났다. 황회가 말하였다.

『우리 향도의 자당님께뵈입니다』

그들은 원향에게 넙죽절하였다.

원향이도 이번에는 침착하게 일어나 맞절을 하였다.

『오 박수께도 전갈을 하였으니, 아마 곧 올겝니다』

황회가 말하였다.

『용녀부인께서는 앞으로 소임이 막중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면 인근 사방의 향도를 집도 방문해야 하고 대소의 팔흔 상제마다 집례를 하셔야겠읍니다』

그러자 원향은 정색을 하고 말하였다.

『제가 어린 아녀자라고는 하여도、오진암법회의 동은 조금 알고있지요. 어찌 제가 만신의 일에 그치겠읍니까. 향도님들 하시는 일을 팔짱끼고 나서서 도와야지요』

『잘 말씀하셨소. 부인께서는 구월산의 양민들 살려야지않으셨지요. 우리 남고개 사람들은모두 가족을 잃은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냥의 궁벽한 골짜기에 숨어살고있으되, 그 포한을 잊은이는 하나두 없지요』

전성달의 말에 원향은고개를 숙이며 답하였다.

『명심하겠읍니다』

전성달이 원향에게는 아저씨뻘이되나 이렇듯 예를갖추어 간곡히 말하니、원향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이튿날 함께 길을 떠나 송화에서 갈려 신천 소메로 갔던 말립이가 오계손과 그 제원 두 사람을 데리고 사선암 신당에 당도하였다. 또한 월천사 쪽에서도 일거사와 백련이등의 거사패 몇사람이 왔고, 먼저 작수섬에로 여환과 원향의 혼례를 하고나서 그저 술밥으로 대충 치르기로 하였던 것이다. 소반에 정화수 떠놓고서 여환과원향이 맞절을 하였고, 이어서 계화와 백련이가 사담 말서 준비했던 탁주를 내었고 남녀가 한데 둘러앉아 밥이며 술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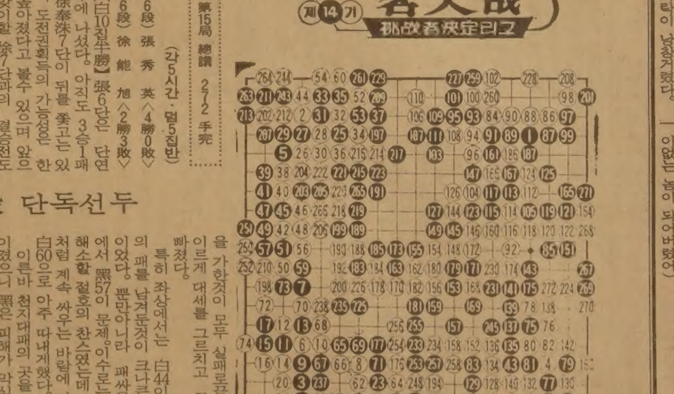
상은 따로이 없어 술만 소반 위에 올려놓고 밥과 나물통속은 그냥 토방 위 삿자리 위에 늘어 놓았다.

제각기 흥이 나서 장고 장단에 잡가가 앞 뒤를 마주치고 가락이 낭창거렸다.

名人战 제14기 挑战者決定리그

第15局 總譜 272 手完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張秀英〈4勝0敗〉
黑(6段) 徐能旭〈2勝3敗〉



張6段 단독선두

【白10집半勝】張6단은 단연 선두에 나섰다. 아직도 3승1패의 徐奉洙7단이 뒤를 좇고는 있으나 도전권획득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 맞이할 徐7단과의 결승전도 부담이 적어서 맘껏 싸울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徐6단은 이미 3패를 하여 시드組탈락이 결정되었다. 이 뒤의 한판을 이기더라도 작년도 서열관계로 자연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바둑을 대충 훑어보면 좌하귀에서 黑9、11、13의 그리고 좌상귀에서 黑25이하로 기습을 가한것이 모두 실패로끝나 때이르게 대세를 그르치고 고전에 빠졌다.

특히 좌상에서는 白44이하52의 패를 남겨둔것이 크나큰 불찰이었다. 뿐만아니라 패싸움과정에서 黑57이 문제。이수로는 패를 해소할 절호의 찬스였는데 고집처럼 계속 싸우는 바람에 마침내 白60으로 아주 따내게했다.

이른바 천지대패의 곳을 白이 이겼으니 黑은 피해가 막심할 밖에없다. 하기야 그뒷가로 黑61이하는 성공했지만 이것도 白74까지 바꿔치고 보니 별무신통이었다.

이뒤 黑은 동분서주、좌충우돌로 열세를 만회코자했으나 黑123、127로 얻은 이득만으론 미치지 못했다. 초반에 입은타격이 곧 치명상이었던 것이다. 55…25、58…32、262…35。【一凡】

땅끝에서 오다 <50>

…시 경찰서로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새벽이 가까와오고 있었다. 준호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했지만 우선 문영실의 혐의를 벗겨 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형사들은 이제 준호에게서 등을 돌린채 자기들 일을 보느라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경찰서의 사무실은 밤에도 낮처럼 붐볐다. 싸움을 하다가 붙잡혀 온 사람들,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남자, 남의 집 담을 넘다가 붙잡혀온 좀도둑, 손님의 지갑을 훔쳤다가 끌려온 술집 접대부에 이르기까지 가지 각색의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준호도 아직은 상당한 피의자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벌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의 후예들이었다.

사람의 얼굴들이 그렇게 치사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임을 준호는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준호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얼굴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사악하게생겼단 말인가. 차라리 인간이 되지말고 들판을 달리는 사슴이나 숲속에 뛰노는 노루나 나무사이에서 지저귀는 새가되는편이 나을뻔하지않았는가.

저 쉴새없이 구르는 눈동자, 저 기회를 엿보는 잔꾀와 비굴한변명들, 저들이 과연 만물을 다스리기위하여 창조된사람의 모습이란 말인가.

준호는 절망하고 있었다. 이세원에게 1층을 빼앗기고, 문 영실을 빼앗기고, 승진에서 뒤처졌을때의 그 굴욕감, 그 슬픔보다도 더 큰 절망이 그를 휩싸고있었다.

(내가비록 지금 죄없다고 변명한들, 내가 저들과 다를바가 과연 무엇인가. 저들이 내얼굴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악한 인간의 얼굴을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을것이 아닌가?)

(저들은 나를보며 속으로 냉소할것이다. 짜아식 엄청하게 생겨가지구서 그래도 자존심은 남아서 뻣뻣하게 앉아있는 꼴좀봐)

아닌게 아니라 준호 자신도 눈동자를 부지런히 굴리며 형사들의 눈치를살피고 있었다. 영실은 어떻게될것인가. 그의 알리바이가 증명될수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실 그녀보다도 준호 자신의 문제가 급한것이었다. 이들이 과연 준호의 무혐의를 인정하고 여기서 내보내줄 것인지도 알수없었던것이다.

일(이제 내일이다) 「X·프로젝트」의 중요서류를 가지고 리비아로 떠나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좀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놓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그리고 만일 이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리비아 입찰대리라는 사람이 밝혀진다면, 사건현장에 나타났다가 형사들에게 연행되었다고 발표된다면 어찌 될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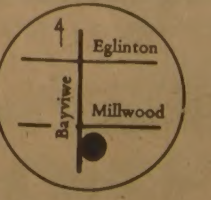
그는 불현듯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났다. 오래간만에 귀국해서 부모님께는 전화한번 해보지도않고 문영실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꼴이 된것이었다. 이세원의 실종사건을 알리기위해서라는 구실은 변명밖에 될수없었다.

(이렇게 될수밖에 없었어. 나는 못난놈이 되어버렸어. 저들, 좀도둑, 주정뱅이, 술집접대부나 다름이없는 놈이 되어버렸어.)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시
(토) 아침10시~저녁 7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FLOWER SHOP)——— Mrs. 원

한인민족상 기금모금

모국연예인 초청 쇼

안보시면 평생 후회합니다.

폭발적인 추세로 매진박두!

☞A석 매 진
☞B석 판매중
☞C석 판매중

표는 빨리 구입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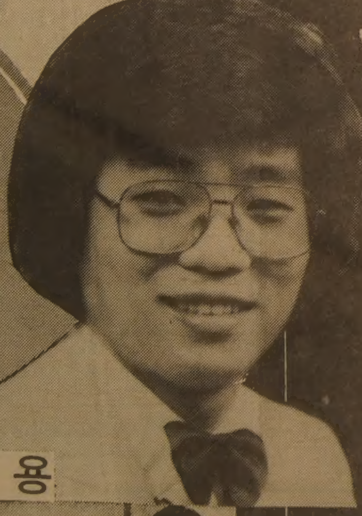
「웃음」과 「노래」잔치

「잊혀진 계절」의…이 용
「아직도 그대…」… 이은하
메들리女王……… 김연자
그룹 사운드…… 호랑나비

이주일의 뮤지컬 코미디
1幕 …………「탈선 춘향전」
2幕 「바보아이들과구두쇠…」
3幕 ….최신 디스코發表등

한국 최고의 코메디안
"무언가를 보여 주겠읍니다."
"못 생겨서 미안합니다" 이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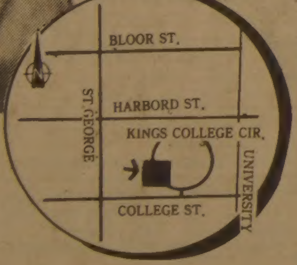
그래머 가수
"네가 좋아"
이은하



이 용

"진정인가요?"
메늘리의 여왕
김연자

호랑나비
선풍적인 인기의 그룹사운드



일시 • 1983년5월13일(금) 오후7시30분
장소 • 토론토대학 콘보케이션홀
(칼리지×세인트 • 죠지) Kings College Circle
입장권예매처(A석 $15, B석 $12, C석 $10)
한국각식품점, 한국관, 동궁, 아리랑하우스, 남강

주최: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민족상위원회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불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환영.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랑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방관광여행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라메관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한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 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깨스탱크 ▲워터펌푸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 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토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쥬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성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파트타임 직원급모 (1)Receptionist: 영어와 한국말로 전화를 받을수 있으며, 영문타자를 빨리 칠 수 있는 용모단정한 사람.
(2)식당종업원: 토요일저녁(6시—10시) 간이식당서 일할 분(연령불문)
◉문의나 신청은 West End YMCA(931 College St.)
Mr.Kim이나 Jackie. 536—1166

급히 가게매니저 구함
월수입 $4,000이상 보장
전화 : 1—560—6400 해밀톤

가발 염색및 가발 만드실분 구함.
경험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나 꼭 필요치는 않음.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다운타운 지역임.
Training을 받기 위해서는 꼭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하고 이해하여야만 함.
문의 : 977—1122 Randy

입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아기보아 주실분 구함.
전화 : B)839—8438, R)282—6223.

주방헬퍼구함.
경험자우대. 몬트리얼지역.
"희의 집" 전화 : 1—(514)—861—6128.

Store Helper 구함.
경험있는 여자분에 한함. little bit of coffee work
Downtown지역. 전화: 368—8834 (오전11시이후)

헬퍼구함. 청소하실 분.
Weston 지역.
전화 : 743—2373(오후5~8시사이 연락요망)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매주말에 지불함.
전화 : 534—5903 Mr. Peter

입주하셔서 17개월 된 남자아기와
약간의 가정일 돌보아 주실분.
전화 : 270—1981.

경험있는 캐쉬어 여학생 구함.
파트타임(오후5시~10시). 단 토·일요일은 풀타임.
전화 : 621—4121 Mrs. 정. 서쪽 지역.

입주하셔서 남자아이 둘(5살, 9살) 돌봐주실 아주머니 구합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6—6911 (오후5시이후 연락요망)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
영어에 능통한 자.
전화 : 221—9051.

파트타임 헬퍼 구함.
Partime helper wanted at Country Style Donut Shop.
Located at Keel and Just South of Finch.
Common english communication needed.
Anyone who is interested please
Call 630—9413 ask for Mr. Yun

재봉사구함.
여자옷종류 재봉할 수 있는 분.
전화 : 366—3227.

도너츠숍에서 일하실 주말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과일 채소가게에서 일하실 결혼하신 남자분.
직접면담요망.
주소 : 383 Roncesvalles Ave. Elliot's Food Market.

재봉사 구함.
숙녀복및 양복 수선 할 수 있고,
꼭 경험이 있어야함.
피스 워크
좋은 베니피트 보장
★희망자는 IRVIN POSLUNS을 면담.
DYLEX, 3RD. FLOOR
637 LAKESHORE BLVD. WEST.
전화 : 591—7054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매 매

FRUIT MARKET 급매.
연수입 $2만보장. (켄싱톤 MARKET & SPADINA)
Asking $4만. 전화:977—6347, 591—9378 Mr. Lai.

Show Case 4ft & 6ft(기타 여러종류)
Magazine Rack 급매.
전화 : 757—8323, 759—6445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5,000.
렌트 : $700. 리스: 6년+10년 옵션
전화 : 1—388—4825(해밀톤)

Becker's 후렌차이스 Store 매매.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직접 내방 요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3,000. 시작한지 10주.
낮은 Rent. 리스좋음. Asking $27,000.
타사업관계로 매매코저함. 전화 : 466—9864(AM10시—11시)

1)새로 차린 자그마한 도낫 커피 아스크림숍
$1만9천 Rent 600
2)월세 $600 가게 800 SQFT. Queen Greenwood 이층 Apt.도 세놓음
3)Wellesley & Parliament dry cleaning Depot $24,000 연매상 $60,000 수선은 별도수입
4)Driving Restaurant 401. Missi Rd. 희랍인이 차린집 1년 56석 주류허가 14년리스 12만5천불
5)Driving Restaurant 401 Pickering 44석. 주류허가 통닭전문집 다른 업종변경도 가능함. $17만5천(외국인4년 경영하고 있음)
6)Scar Centenial Hospital 근처 3 Bed Town House 뒤가 남양바지에 그린벨트가 있음. 5만7천9백
7)West Hill Side Split 15만5천 주인이 은퇴함 8년이 됐고 다 꾸며신 지하실에 뒷뜰이 큼
8)Bloor & Dovercourt 2층 벽돌 새로개조한집 12만7천불
9)하이웨이 No.7 우드바인 1에이커 땅에 벽돌집 꽃과 나무와 잔디. 주인 은퇴함. $8만 down
Royal Trust Co. 전화 : B)752—3111 R)298—0398 곽석용

카사로마 미장원 매매
3개좌및 부엌 포함
전화 : 921—5947 Mr. Gus

장비매매. 새커피머신(그라인더) $600. 새초코렛머신 $400.
새 Meat Slider $1,300. 새써브마린테이블 $2,000.
커피테이블및 의자등등. 전화 : 465—6885(Mr.김)

Town Houese 매매(좋은 가격) 매매.
Jane & Sheppard지역
전화 : 743—3377 Mr. Eastman

가게 달린 주택 매매.
좋은 위치, 좋은 전망.
전화 : 653—1958 Mr. Viss 영어로 문의바람.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주매상 $7,500. 리스 5년반 + 5년옵션.
꼭 사실분만 문의바람. 전화 : 746—0272.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그로써리 Store 매매. 주매상 $7,000($10,000 가능)
아스킹 : $98,000 리스: 10년 렌트 : $500
토론토 북쪽 전화 : 1—852—7907

도우넛 숍 장비매매.
Half Price Sale.
전화 : 884—5573. Mr. 강.

Dry Cleaners(Depot)매매.
주매상$850. Rent$350. Asking$23,000.
전화 : 531—5664.

Tuck—Shop Variety Store 급매
꼭 관심있는 분만 내방을 바람.
면담시간 : 9am~11am
영업시간 : 8:30~9까지 하고 있음.
장소 : Dundas + Parliament 근방
39 Belshaw Place. Tor.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5,500. 로타리오 머쉰.
직접 내방 요망. 5년 리스 + 5년 옵션. 비데오 있음.
1801 Lawrence Ave. E. Scarboro.

PICK—UP 세탁소 매매. Asking: $6,000
Apt. Rent 포함 $400. 리스 8년
전화 : 534—5903 Mr. Peter

도나스 숍 매매. 주 $5,500
Bathurst & 580 Queen St. W.
전화 : 368—2100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블로아에 위치한 스토아 매매. 비데오게임 라이센스.
Post Office 로타리오 머쉰 연수입 7만2천이상
Asking Price : 9만5천+Stock 전화 : 588—1494

이전관계로 좋은 조건으로 급매.
3 Bed Room. 콘도미니움 타운하우스.
전화 : 493—0615 Mrs. 안(6시반이후)

버라이어티 & 그로서리가게 급매
주6일 영업. 주매상 4천불. Lotterio+Video기계있음.
Asking 3만불+스탁. 714 Scarlett Rd.

Donut Shop 매매 Asking: $159,000
$80,000 down or $140,000 cash
전화 : 447—6129 call after 9pm ask for Nick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6,500 + 로타리오 머쉰있음.
전화 : 977—0578. Mr. William(K.SEE REALTY INC)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6,000 아스킹: $61000 리스: 5년($650)+5년($750)
현재 $580 (in Plaza) 전화: 528—3986 Mr. Lee

햄버거 레스트랑 매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Oshawa Downtown Shopping Mall안에 있음. Shoe repair Shop. 4월 1일부터 Open했음. 매매.
관심있으신분은 291—8367로 전화연락바람(아침10시 부터 오후3시)

오픈한지 5개월 된 도너츠숍 급매.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3—1733.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써부릿렌트. 온타리오싸이언스부근. 현재 월$605.
3 Bed Room(8월이후$650). 5월15일부터 입주가능.
전화 :424—1993. 낮 536—2155.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248—2437(R)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피아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하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춘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모드가구점 SPECIAL SALE!

MOD ADDITIONS FURNISHINGS

◈고급 WALL—UNIT
◈각종의자들.
◈고급 소파종류
◈많은 그림및 벽시계
◈각종 크고 작은 램프
◈Dining Table & Chair

- 신혼부부 특별할인
- 실용적이고 매혹적인 가구
- 실내장식 상담환영 (주택·아파트출장 가능)

2300 YONGE ST. TORONTO
(YONGE & EGLINTON CENTRE)
☎(B)486-0397 홍 애 연